

목차 Contents

10p 왜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인가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20p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활동 이야기

우민희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28p 문래동에서 가장 멋진 것 ‘문래간판스타’

김보배
(코- 대표)



3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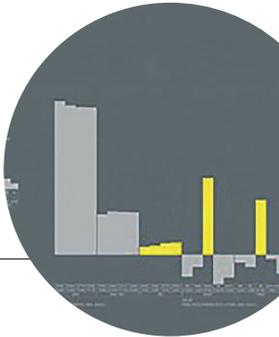
떠오는 사람들 -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신동혁
(글자가온다 대표)

44p

공장안밖 -5와 1,1,1,...

강수경
(기획/작가)



52p

우리들의 이야기

김진
(작가)



62p

캠퍼스, 여성, 나무

김진주
(미술작가, 기억하는 용기 대표)



‘기억과 기록의 예술’



76p 정릉 마을 기억을 기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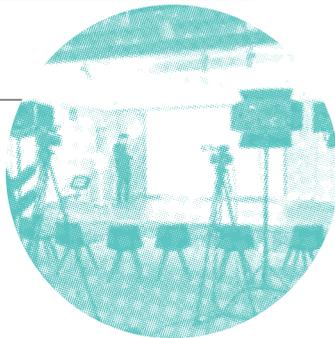
최연희
(정말기록당 활동가)



106p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최서영
(주)더페이퍼 대표)

89p 1부 Q&A



118p 지역문화자원의 기록과 공유의
다양한 방식과 사례

이승욱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96p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

박지원
(대안예술공간이포 대표)



129p 2부 토론 및 Q&A



영등포 문화적도시재생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하우징랩 H-Hall

<라이브방송>

1) 영등포문화재단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dpcf/>

2)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uTt0GRpWBrEdWtxTJHpI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1부(사례)	발견
14:00~14:20	<p>왜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인가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p> <p>문화생산도시리빙랩 활동 이야기 우민희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p>
	기록
	<p>문래동에서 가장 멋진 것 ‘문래간판스타’ 김보배 (코- 대표)</p> <p>떠오는 사람들 -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신동혁 (글자가온다 대표)</p> <p>공장안밖 -5와 1,1,1,... 강수경 (기획/작가)</p>
14:20~15:30	<p>우리들의 이야기 김진 (작가)</p> <p>캠퍼스, 여성, 나무 김진주 (미술작가, 기억하는 용기 대표)</p> <p>정릉 마을 기억을 기록으로 최연희 (정말기록당 활동가)</p> <p>Q&A</p>
15:30~15:40	휴식
2부(발제 토론)	방향
	<p>왜 우리는 아카이빙을 이야기하는가 좌장 :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p> <p>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 박지원 (대안예술공간이포 대표)</p> <p>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 수원 골목잡지 '사이대'를 중심으로 최서영 ((주)더페이퍼 대표)</p> <p>지역문화자원의 기록과 공유의 다양한 방식과 사례 - 광경이예술마을을 중심으로 이승욱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p>
16:30~17:00	토론 및 Q&A

1

발견 & 기록

강 원 재
우 민 희
김 보 배
신 동 혁
강 수 경
김 진 진
김 연 주
최 연 희
Q & A



영상보기

부 발견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왜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인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화적 도시재생과 영등포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프로젝트입니다. 왜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70년대 울산입니다. 울산 공업탑이 있는데 이 주위에는 쪽 논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도시 안에서 농업은 우리 삶으로부터 멀어졌죠. 조선소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작은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해안이 아름다운 이 어촌 마을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삶으로부터 우리의 주거공간이 사라지고 물고기를 잡고 수산물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교역을 통해서 수산물을 공급받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제철소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동안에요. 영등포도 다르지 않습니다. 1930년대 문래동에서 바라본 영등포의 모습은 논밭으로 가득 찬 땅에서 농업생산이 이루어졌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그동안 생산하던 것을 점점 외곽화 시키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1970년대 문래동4가 주거단지였던 500채 공간들은 많은 철공소가 있고, 철제상가, 철공소 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 도자기 공장, 맥주 병을 생산하던 공장도 주택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1차 생산을 활동을 직접 채취하는 농업이나 어업 등을 이야기하고 2차 산업을 제조업으로 이야기하는데, 생산을 하던 기능이 자꾸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도시에는 생산 기능이 없어지고 소비 기능만 남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표 자료의 사진은 현재 문래동 영등포의 모습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밀려들어 오는 듯한, 이제 그 중간의 문래동 일대는 곧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 인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생산도시라고 이야기할 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은 기억이나 역사에 주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라는 건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필요한 일로 바꿔내는 활동들이고요.



‘문화’는 지역, 단체 혹은 공동(체) 등 특정 시공간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꿈, 이야기, 의례, 축제, 건축, 예술, 자연, 장소, 역사 등이며,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고 지켜가는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며, 함께 보존하고 가꿔갈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유무형의 양식(스타일)

‘생산’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개발하여 인간의 욕구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일련의 활동

‘도시’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잘 놀고, 더 잘 일하고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이루고 지키며 사는 장소

도시는 우리가 이제 더 잘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법과 제도,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장소일 겁니다. 문화라고 이야기 할 때 ‘컬처’가 ‘쿨트’라는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미 아실거예요. 농사를 의미하는 쿨트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농사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여기에 이제 별과 밭이 연결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활동들이 ‘농’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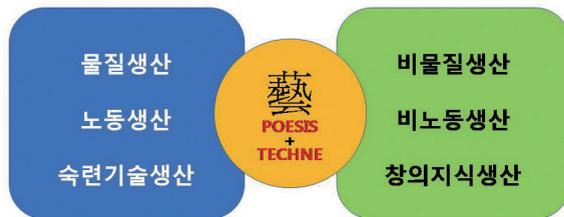
그리고 ‘공’도 재미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는 무의 행위가 되고요. 무의 행위는 곧 예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도 구름과 구름위에 꽃을 피우는 사람의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농에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산 활동을 곧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산도 그렇죠. 프로듀서라는 게 무대 뒤에서 무대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활동, 등장의 의미들을 지니는 것들이고요. 17세기에 이제 농산물의 의미로 바뀐 것이 프로듀스의 의미죠.

‘기억과 기록의 예술’

그런데 생산에는 물질생산, 노동생산, 숙련기술생산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물질 생산과 비노동 생산 창의지식 생산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도시는 물질 생산 노동 생산 숙련기술 생산들이 이제 비물질생산, 비노동생산, 창의 지식 생산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예술과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른 말이 아니라 생산과 의미를 가진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도시에 대해 ‘시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비타스’라는 마을이라는 지역 의미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것이 ‘시빌리제이션’ 문명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도시 안에서 농업과 공업, 생산의 의미를 밖으로 내몬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생산이라는 의미들, 문화가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의미를 이 도시 안에서 다시 회복해가자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CULTURE 農 工 巫 藝



CITY CIVITAS CIVILIZATION



구겐하임미술관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 빌바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빌바우는 구겐하임미술관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오랫동안 어업을 하고 거래를 하던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공업, 철강업, 조선업이 발전하고 매연으로 도시가 쇠락의 길을 잃으면서 텅 비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역의 예전 기억으로부터 재생하면서 문화가 결합하여 현재의 빌바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철공의 조선소가 있었던 곳이 바뀌며, 주거, 산업이 같이 결합하는 스마트시티로 발전 하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영등포 문래동도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문화도시생산리빙랩 거버넌스와 지역재생 문화캠퍼스를 통해서요. 장소는 문래동 현재 창작촌이라고 불리는 일대를 의미하고요. 현재 굉장한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생이란, ‘리제네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활동이나, 쓰임새가 없어진 사무시설, 장소, 기업,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연환경 등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들을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 대상지 주변의 도시개발로 중심부에 설치된 쇠퇴
- 센터리베이션으로 지역경제성(개개소수집업체 문제장착촌) 위기
- 도시기는 변화의 과정에서 주변 공간(소상공간) 예술가-상업 간 갈등

재생 再生 Re+generation
활동이나 쓰임새가 없어진 사무, 시설, 장소, 기업, 사회적 관계, 혹은 자연환경 등을 기존 기능의 변화나 새로운 기능의 더함, 혹은 원상의 회복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갖도록 하려는 목적의 작업과 활동

역사 歷史 history
histor+story
기억 記憶 memory
Mnemosyne+story
기록 記錄 record

ARCHIVE ἀρχεῖον

그러기위해 우리는 가치, 공유하는 기억, 예전의 기억과 역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역사는 현자들의 이야기라고 하죠. ‘히스토’가 현자들과 예언자들의 ‘히스토리’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기억은 ‘므시모 시네’의 이야기, 기억의 여신입니다. 뮤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되는 기억의 여신 이야기를 우리는 ‘메모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그런 한자 표기로는 철에 세기는 문자를 이야기하고요. 아카이브는 그중에서도 아르게 근원에 관한 것을 수집한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생산도시 이야기를 할 때 문래동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기록 기억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다시 이 시대의 가치로 연결하는 활동이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문래동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예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예술과 기술, 우리는 ‘예’와 ‘기’ 마을에 대해 집중하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술의 의미에서는 기술과 예술과 마술이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테크네’와 ‘아르세’의 문제이고 그건 예술의 문제인거죠.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자연과 자연성들을 회복하고 마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기계, 소음, 매연 등에 처한 환경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삶을 위한 그림을 함께 그려 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藝 마을
技術 CIVITAS
TECHNE CIVIS+COMMUNITY
ARS





영상보기

1부 발견

우민희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담당)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활동 이야기

영등포문화적도시재생사업

문화생산도시리빙랩

-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
-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



문화생산도시리빙랩 | 예술·기술·주민 협력의 리빙랩

예술인·기술인·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험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 예술·기술·주민 협력의 리빙랩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

- 지역 이슈/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형 협력 프로젝트

술술 시범운영 프로젝트

- 술술랩(예술기술협력센터) 리모델링 전, 공간 활용 프로젝트

오늘 2019년 문화적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된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예술인, 주민, 그리고 기술인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험실을 의미합니다. 문래동에는 문래 예술 창작촌이나 철공소, 그리고 주거 단지가 함께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자원으로 예술, 기술, 주민의 협력 리빙랩을 목표로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은 이제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는 지역의 이슈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형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범사업은 ‘술술 시범 운영 프로젝트’인데요. 술술랩 리모델링 전에 공간을 활용하거나 거점공간으로 시범 운영해 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문래동에 위치한 술술랩은 은색의 삼각형 지붕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가을 개관을 꿈꾸면서 예술인과 기술인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문화 협력공간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첫 번째로 진행한 리빙랩제안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섯 팀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팀은 문래간판스타프로젝트로, 소공인 마을의 오래된 간판이나 시트지를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문래건축가 라운드테이블 프로젝트로, 문래동을 기록하고 조사하는 건축가를 협의체를 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이슈를 진행한 두 팀인데요, 재미있게도 두 팀이 제작 공정에 반으로 나뉘져 있어요.

첫 번째 분리배출연구소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분리배출 순환 시스템을 고민하는 프로젝트이구요, 발표 자료에서 이 팀이 직접 개발한 분리배출함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손쉽게 세척할 수 있는 젠더를 개발했고 이번 에 올해 초에 당산동에 그린 히어로라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다른 팀은 새활용 플라스틱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자료 사진은 병뚜껑을 재활용한 타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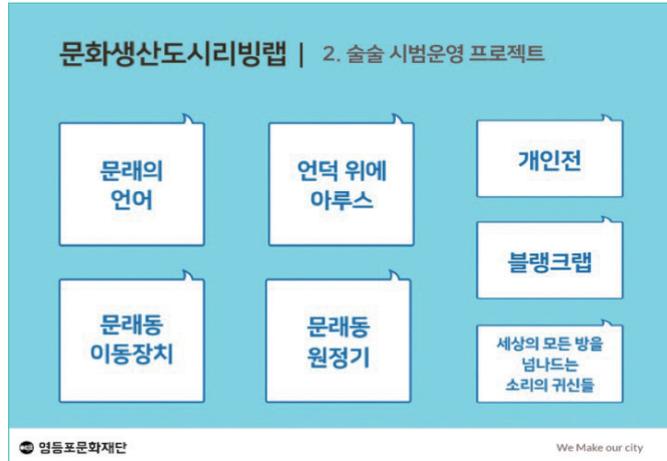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해결 키트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시작해서 진행했고요. 이동형 커피바를 개발하거나 제작했는데 이동형 커피바를 생각하게 된 건 작가들과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예술이 가능할지 대화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또한, 문래가치 환원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즘 전트리피케이션이나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급변하는 동네에서 누구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서 지역 내 작가들 공방들 가게들이 협력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개발하고 유통했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리빙랩 제안 프로젝트 외에 술술랩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한 ‘술술 시범 운영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7개의 팀이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래의언어 프로젝트로, 문래동을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전시 및 아카이빙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래동 이동장치를 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문래동 특성에 맞는 이동장치를 개발하며 실제 시제품을 제작한 사진을 발표 자료에 담았습니다.



문래의언어
"연구자 아닌 문래동에 오래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 문래동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 및 수집, 아카이빙북 제작
- 재집한 '문래의 언어'를 재료로 예술가들의 체험 전시
- 부제인 '떠오는 사람들'은 문래동을 '떠' 나고 들어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등포문화재단 We Make our city

문래동 이동장치
"지역에 도움 되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

- 문래동 지역 특성에 맞는 이동장치 개발/제작
- 작은 공간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
- 지역의 예술가와 기술인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동장치를 설계하고 제작

영등포문화재단 We Make our city

언덕 위에 아루스
"문래 마을에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어린이는 누구와 놀아야 하는 거지?"

- <언덕 위에 아루스>는 문래동 칠공소에서부터 모티브를 얻어 쓴 소설
- 문래동 아이들을 초대에 문래동 모티브로 만든 아루스 종이모형을 함께 만드는 워크숍 진행
- 종이모형 아루스 그림/이야기/소설 전시

영등포문화재단 We Make our city

문래동 원정기
"어떻게 초년 작가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작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까?"

신진 작가 네트워크 형성과 문래창작촌 이주를 위한 사전 탐색(선배작가 만남, 부동산 투어) 다른 선배 작가들의 작업 방식, 방향성,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공부와 자극이 됨
문래동 이주를 준비하는 신진 작가와 문래창작촌 작가 교류/ 신진 작가 공동 전시 운영

영등포문화재단 We Make our city

다음은 문래동을 모티브로 한 언덕 위의 아루스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문래동을 모티브로 만든 이야기 주인공 아루스 이야기와 종이모형을 전시하면서, 문래동 어린이와 함께 종이모형을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작가들이 문래동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진행된 문래동 원정기입니다. 문래동으로 이주하고 싶은 작가들과 문래동에 오래 작업한 작가들이 함께 교류하고 또 실제로 부동산 투어를 하고 신진 작가들의 공동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마지막 세 팀은 개인전, 블랭크, 세상의 모든 소리의 귀신들 프로젝트입니다. 한 팀은 예술가에게는 텅 빈곳이 필요하며, 이렇게 숄숄랩 공간에서 마음껏 예술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공유한 사진입니다.

장소를 거점으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고 사람과 장소,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협력, 리빙랩의 주체, 협력, 생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만큼 앞으로의 과제가 남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규제나 제약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기술인 주민의 협력을 지원하는 장소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창작과 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생산도시리빙랩 발표를 마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기록

김보배

코- 대표



영상보기



유닛 프로젝트성 공간 Co- 라는 이름의 공간을 운영중인 디자이너 김보배 입니다. 주로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일을 주로 하며 스크린 프린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창작자 그룹 LLRP(Live Learn Run Project)의 멤버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활동

-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프로젝트[문래간판스타 Part.2] 기획 2019
-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소식지 디자인 2018-2019
- 아트플랜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프로젝트[힘을내요] 2017
- 서울시립미술관, 문래동 철공예술간판 프로젝트, 참여작가 2015

문래동에서 가장 멋진 것, 문래 간판 스타



마을을 기억하는 기록물,
문래동을 기록하여 기억하다.

마을을 기억하는 기록물, 문래동을 기록하여 기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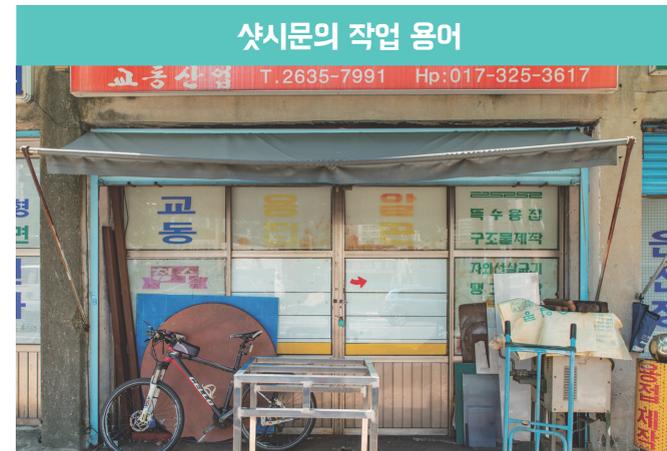
문래동을 검색하면 맛집이나 창작촌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나오는데 문래동이 창작촌이기 이전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기술적 자부심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본인들의 삶과 지역적 정체성을 가꾸어온 문래동 기술 장인들의 모습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

- 문래동의 샷시문의 글씨들이 보여주는 문래동의 정체성**
- 문래동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작업용어)가 주는 정보를
 - 겹겹이 쌓인 시트지가 보여주는 공간의 변화

저는 문래동에서 작업실을 운영하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문래간판스타 프로젝트는 문래동 철공소의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오래된 간판들과 공장문을 꾸며주고 있는 시트지 이미지들을 모으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이미지를 재현하는 스크린 프린팅 작업물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프린팅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문래간판스타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문래창작촌이 방송에 많이 나온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래동은 그 이전부터 계시던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기술 장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맛집이나 멋진 공간들도 많은데 그 공간이 생기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처음에는 문래동에서 지내면서 그냥 이미지들이 예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았었는데, 문래동이 이슈화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간판 교체사업을 하고, 많은 분이 들어와 새로운 공간을 꾸미면서 문래동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진을 찍고 모으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2018년 문래간판스타 Part1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9년 문래간판스타 Part2로 리빙랩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기억하는 기록물, 문래동을 기록하여 기억하다’라는 모토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문래동을 검색하면 문래 맛집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말고 여기에 어떤 분들이 있었고 어떤 삶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겹겹이 쌓인 시트지와 공간의 변화

문래동 샷시문과 간판들을 모으면서 문래동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문래 골목을 걸어 다녀 보면 간판들이나 시트지 이미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공간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이미지는 겹겹이 쌓이면서 뜯어내고 다시 새로 붙이는 게 아니라 겹쳐지기도 해요. 원래 '삼양정밀'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정밀'로 바뀌고 또 현재는 이 곳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새로 다른 공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미래 ENG'였다가 '동원 와이어'로 바뀌고요.

‘기억과 기록의 예술’

원래 있었던 공간 위에 다른 공간이 들어와서 겹겹이 쌓이면서 그 공간이 어떻게 시간과 함께 변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던 사장님은 디지털 작업으로, 디지털 작업하던 디자이너는 아날로그 스크린프린팅으로.

간판이 손글씨에서 시트지로, 디지털 파일로, 다시 스크린 프린트로 변환시키는 흐름.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시와 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스크린 프린팅이라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재현을 했던 이유는 문래동에는 기술 장인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문래동에서 시트지 작업을 하셨던 분은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크린 프린팅을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트지 작업하시던 사장님은 수작업을 하시다가 디지털 방식의 작업으로 바꾸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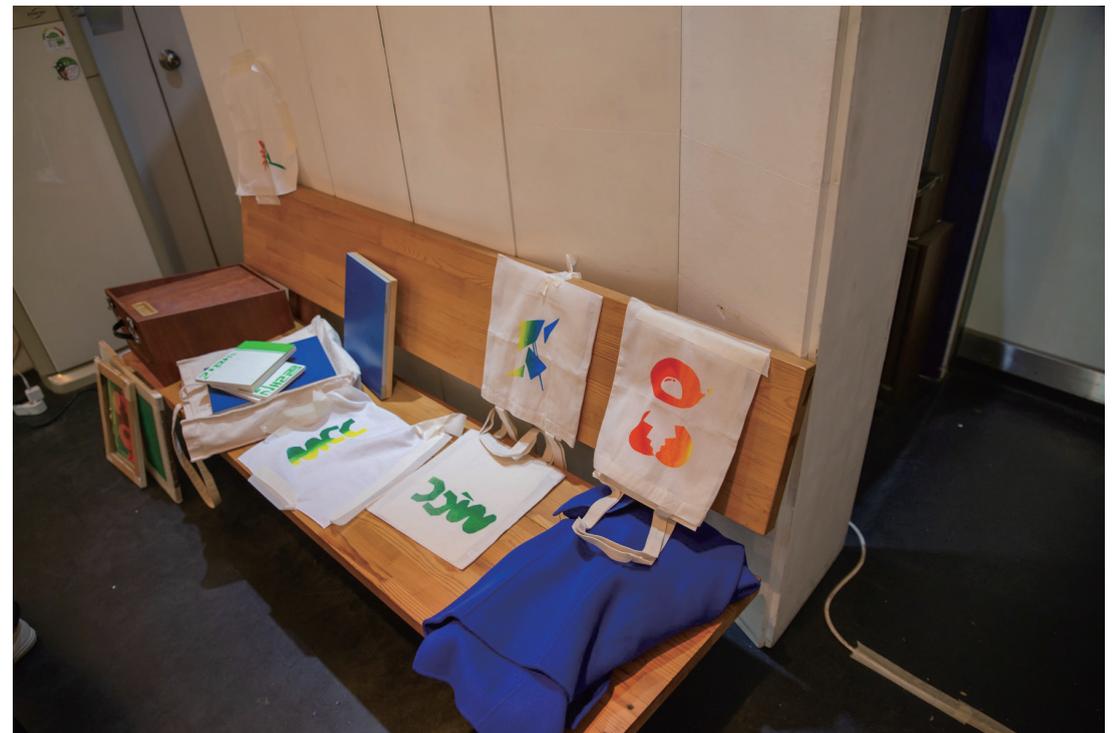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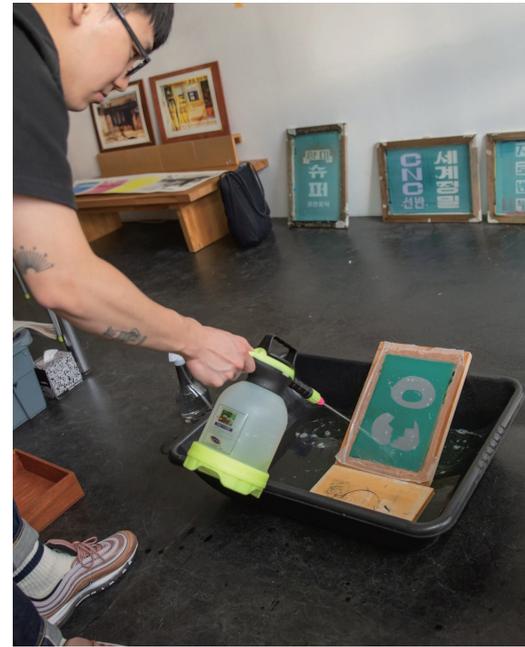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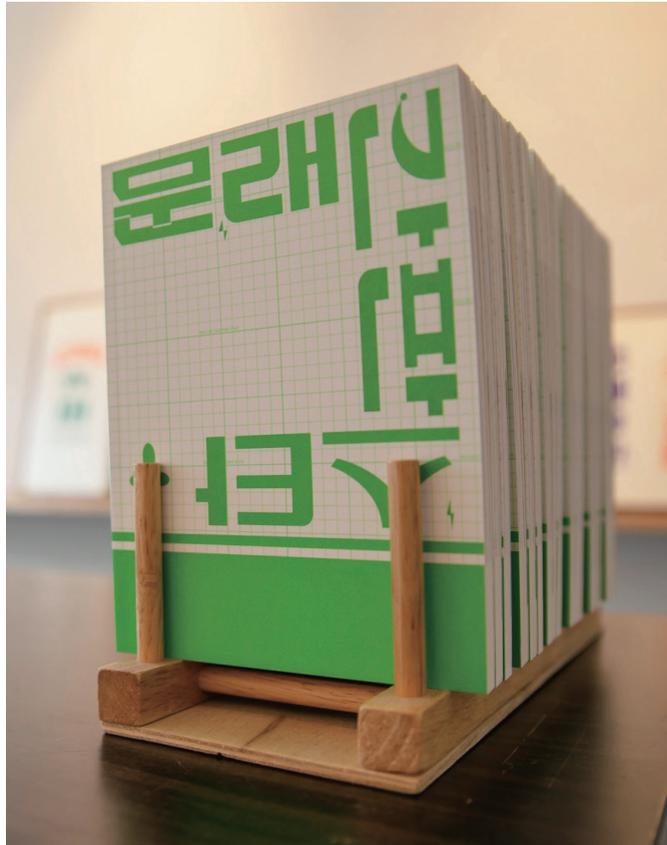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다보니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다시 해석해서 스크린 프린팅으로 수작업으로 프린팅하는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으로 관객들이랑 만나면서 이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수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창작자의 제작 과정을 직접 함께 보면서 해보는 작업이어서 대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래 간판 스타 Part1

발표자료의 사진은 제가 이번에 전시했을 때 작업물들이구요. 문래간판스타 Part1과 Part2의 차이는 Part1에서는 문래체라고 알려져 있는 글씨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주로 문래체에 관해서만 자료를 모으고 이 문래체를 만든 분이 손수 스케치 없이 바로 시트지를 잘라서 글씨를 만들어서 하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관객들이 한 번 체험해볼 수 있게 종이로 잘라서 도안을 만들고, 도안을 만들어서 바로 찍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했었어요.



문래 간판 스타 Part2

Part2에서는 문래동 샷시나 시트지에
적힌 단어들의 의미와 그 정보들에 대
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미리 준비한 도안에 작업 용어들을 미
리 준비해서 참가자들이 찍어볼 수 있
게 했어요.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을 찍는 동안 무
슨 뜻인지를 물어보거나 실제로 있는
공간이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에 대한 설명이나 작업에 대한 설명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다들 작업을 한 번 해보고요, 제
가 또 조금 더 욕심을 냈었던 부분은 만
약에 이 분들이 문래체가 적힌 티셔츠
를 입었을 때 누군가 ‘오,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제가 해줬던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좀 전달해줄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티셔츠에다가 프린팅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료
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랑 더 친밀하게 이야
기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보
고 싶어요. 제가 재밌게 봤던 다큐멘터
리 제목 중 ‘기록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록하여 기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만든 기록물로 사
람들이 문래동을 조금 더 재미있게 기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기록

신동혁

글자가온다 대표



영상보기



글자가온다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야기를 예술로 전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과 널리 공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대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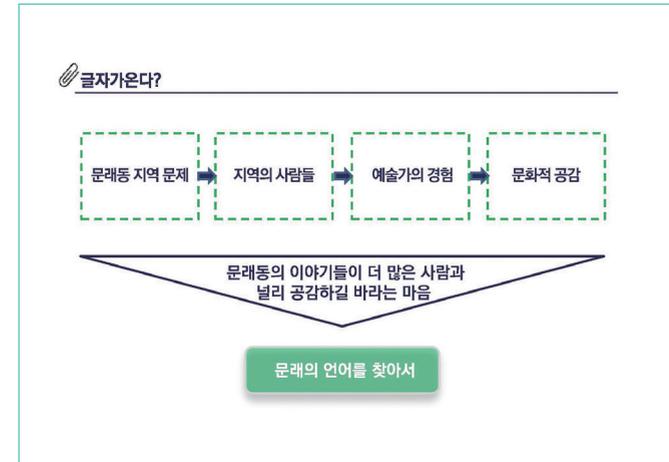
- 문래의 언어
- 문래동의 예술 재료
- 문래동 공공 예술 관심도 조사 및 연구

떠오는 사람들 -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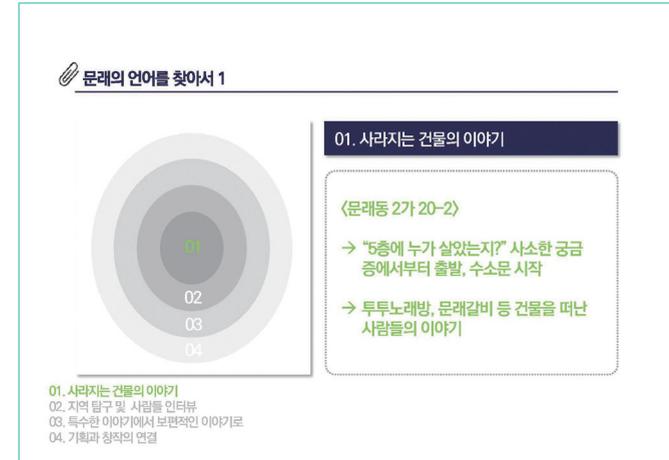
떠오는 사람들 -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기획 신동혁 (글자가온다 대표)

www.geulja.com



제가 발표할 사례는 ‘떠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미술 전시 ‘문래의 언어’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업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어땠는지, 제가 이 문래동에서 문래 언어라는 전시를 왜 진행하는지 그것에 대한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래동이라는 곳은 많은 분이 편견을 가진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 지역이고, 예술가들도 있고, 기술인들도 계신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역에 계신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자신들의 지역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저는 문래동에 어떤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그 이야기들을, 중간의 매개 역할로 예술가들에게 전달하고 예술가들은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의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작으로 변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글자가 아닌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래동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널리 공감되고 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저한테는 ‘문래의 언어’를 찾는 과정이었고요.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라지는 건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술술랩이 될 건물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문래동 2가의 20-2번지 건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건물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살아 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예술 활동의 공감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첫 번째 과정으로 지하에 살았던 투투 노래방 사장님과 그리고 1층에서 영업을 하셨던 문래 갈비 사장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래동 2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슈퍼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등등 많은 분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녹취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문래동이란 지역을 통해서 오는 관객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진 어떤 특수한 이야기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3



03. 특수한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예술가의 관심 + 주민들의 이야기 + 전시를 보러 오는 관객과의 공감대 찾기》

→ 기록활동(아카이브): 단순한 기록 X

→ 지역의 특수한 이야기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01. 사라지는 건물의 이야기
02. 지역 탐구 및 사람들 인터뷰
03. 특수한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04. 기획과 창작의 연결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4



04. 기획과 창작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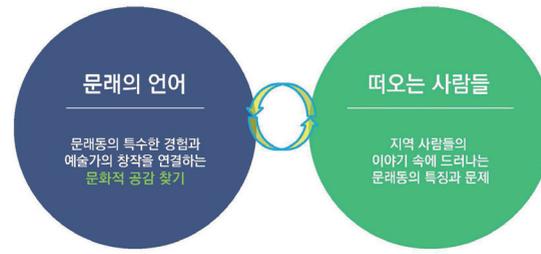
《“살고 있던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문래의 언어》

→ 우리도 어딘가에서 떠나거나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음 = 보편성

→ 예술가들은 ‘문래의 언어’가 전하는 감각을 창작 작품으로 연결

01. 사라지는 건물의 이야기
02. 지역 탐구 및 사람들 인터뷰
03. 특수한 이야기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04. 기획과 창작의 연결

전시 기획



문래의 언어
문래동의 특수한 경험과 예술가의 창작을 연결하는 문화적 공감 찾기

떠오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문래동의 특징과 문제

전시 : 문래의 언어(떠오는 사람들)



전시 참여 작가

박천욱

언어를 조형으로 보여주는 작업 의지를 관통하는 철사로 떠나고 들어오는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으며 문래동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색감을 사용하여 지역의 느낌을 담았다. 또한 다양한 모양의 그곳은 각자의 이유가 있는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자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나 언어들이 다름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다.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기록을 해서 아카이브를 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를 찾는 것이 문래의 언어를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살고 있던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만 들어온다’인데요. 인터뷰를 했던 많은 분이 해준 이야기의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한테 와 닿았던 이유는 문래동이라는 한 지역에서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단 특수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이 이야기를 예술가들의 감각으로 어떻게 전해 볼까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문래의 언어는 문래동에서의 어떤 특수한 경험과 이를 창작하고 전시를 보여주는 문화적 공감 찾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래동의 문제와 특징들 그것을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이미지는 포스터고요. 전시에 참여한 작가분들에 대해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박천욱 작가는 조소를 전공하신 분이요 저의 이야기들을 조형적인 언어로써, 떠나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언어로서 표현했던 그런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손지훈 작가의 경우, 제가 이야기를 공유할 때마다 문래동이란 한 지역이 가상 공간의 게임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게임 속에서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하는 과정들이 어떤 게임의 왕을 찾아서 깨는 예술 활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가상 공간의 녹색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혁 작가는 아카이브든 현대미술이 굉장히 그저 전시를 보러 오시는 관객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이의 틈들을 메우기 위해서 기획자인 저와 함께 좀 더 아카이브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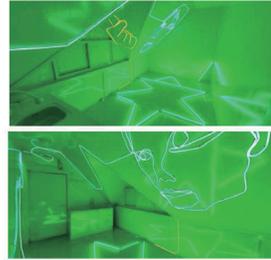
앞으로 ‘문래의 언어’ 이후에 저의 관심사는 특수한 지역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문래동에서 느끼고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특히나 노인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실제로 문래동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많은 변화를 겪으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역시 언젠가, 또는 곧, 결국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전시 참여 작가

손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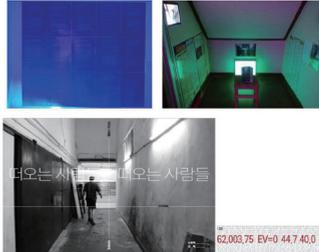
기획자가 전해준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작가를 통해 가상의 게임 이야기가 되었다. 문래동은 가상 게임 공간으로, 전시가 진행되었던 건물의 꼭대기층(5층)은 게임의 끝판 왕이 살고 있는 공간이 되었다. 내온으로 만들어진 마법진, 보스, 보스를 깨면 나오는 선물(하트) 등은 기획자가 전하는 문래의 언어 속 감각에 대한 표현이다.



전시 참여 작가

안혁

안혁은 아카이빙 된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전시 공간(501호, 502호)을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예술가들과 관객 사이의 간극을 매우며, 그 간극의 틈에서 문래동에 관한 또 다른 상상 요소들을 관객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떠오는 사람들” 인터뷰 집과 그 안에 공개되지 못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레터프레스, 건축의 언어들로 표현했다.



지금 진행중인 과제?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 문래의 노인들

1. 문래동 고전/구어의 기록
2. 노인의 문래동 경험 - 한국의 역사 속 문래동이란?

떠오는 사람들 - 문래의 언어를 찾아서

기획 신동혁 (글자가온다 대표)

www.geulja.com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딱딱하지 않은 구어 형태로 문래의 언어들을 수집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래동이라는 작은 지역의 작은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노인들이 겪는 문제 해결에 작은 실마리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앞으로도 과제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제가 분석한 내용의 예시를 보시면 숫자들이 좀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체화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데요. 지금 표기해둔 내용들은 숫자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을 다시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삶의 언어로 회귀했을 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개인의 삶의 방식에서 그 숫자들이, 삶의 덩어리로 지역을 볼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석작업의 주제는, 우리가 문래공장이 가지고 있는 낡고 오래된 이미지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목차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숫자라서 잘 안보이시죠. 분석 작업 내용을 보면 각 자치구청에 대한 자료, 사업체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물론 인구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것들은 서울시나 통계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 생각했냐면 조사 기관이 다를 것이고요. 유사 업종에 대한 구분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업체 수-총사자 수-1 산업 소분류_저차구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총사자 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2015년	79,227	27,845	15,619	406	5,420	1,754	2,102	2,438	3,259	137	85	20,523	79,227	27,845	15,619	406	5,420	1,754	2,102	2,438	3,259	137	85
2016년	13,844	62,649	301	384	289	294	483	386	367	297	297	20,178	13,844	62,649	301	384	289	294	483	386	367	297	297
연평균	4,620	2,260	82,274	59	1,600	1,028	148	132	459	41	112	20,350	4,620	2,260	82,274	59	1,600	1,028	148	132	459	41	112

사업체 수-총사자 수-2 산업 소분류_문래동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총사자 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2015년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2016년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연평균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1,080

서울 영등포 문래

사업체 수-총사자 수-3 산업 대분류_문래동

사업체 수	총사자 수	제조업	문래동 제조업 규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제조업	1,527	1,569	1,860	1,762	1,801	1,797	1,804	1,756	1,705	1,774	1,779		
건설업	133	162	121	114	105	131	150	160	161	171	174		
서비스업	-	-	1	1	1	2	2	2	2	2	3		
합계	2,000	2,121	1,982	1,897	1,907	1,930	1,956	1,918	1,928	1,956			
제조업	1,527	1,569	1,860	1,762	1,801	1,797	1,804	1,756	1,705	1,774	1,779		
건설업	133	162	121	114	105	131	150	160	161	171	174		
서비스업	-	-	1	1	1	2	2	2	2	2	3		
합계	2,000	2,121	1,982	1,897	1,907	1,930	1,956	1,918	1,928	1,956			
제조업	1,527	1,569	1,860	1,762	1,801	1,797	1,804	1,756	1,705	1,774	1,779		
건설업	133	162	121	114	105	131	150	160	161	171	174		
서비스업	-	-	1	1	1	2	2	2	2	2	3		
합계	2,000	2,121	1,982	1,897	1,907	1,930	1,956	1,918	1,928	1,956			

서울시 영등포구에는 4,305개소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2,680개소 (62.25%)가 금속 관련 제조업체이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총 79,227명(27.94%)이 금속 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며, 업계 1개소에 평균 4.6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는 4,305개소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2,680개소 (62.25%)가 금속 관련 제조업체이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총 79,227명(27.94%)이 금속 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며, 업계 1개소에 평균 3.5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는 한국 기계 산업 분야에 근거한 산업 분류 내 금속가공 관련 사업 종횡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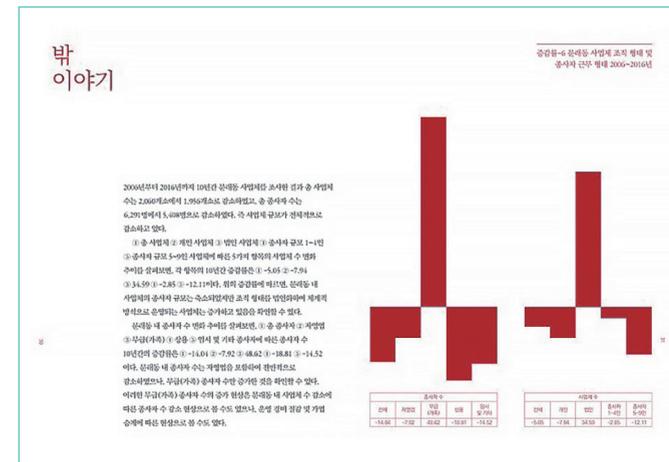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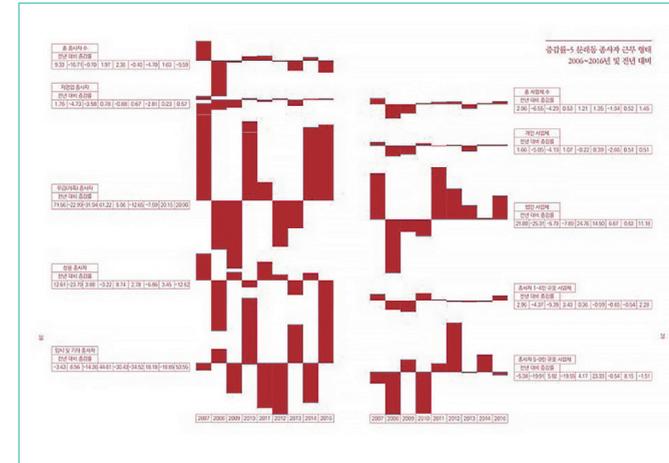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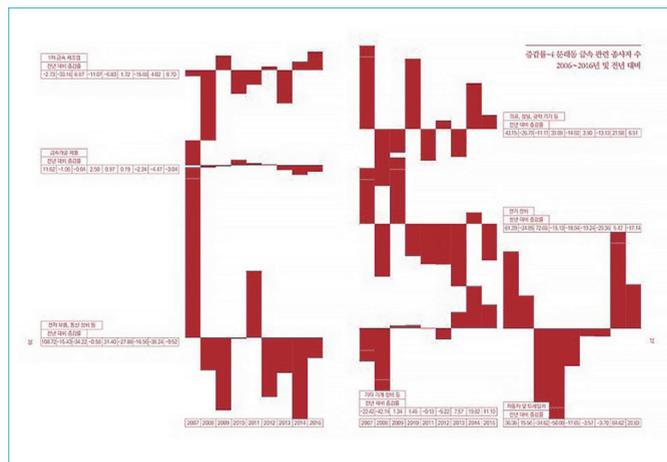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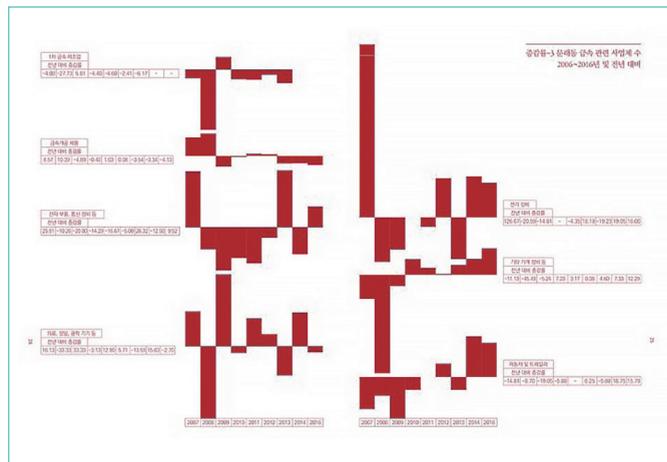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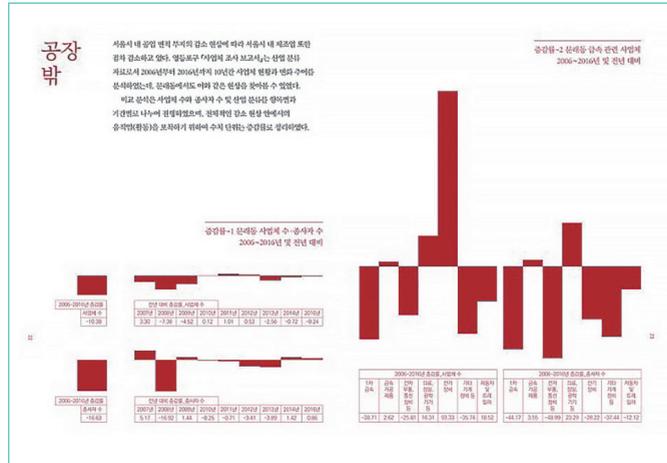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사계 제조업
 - 전기 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 문래 기계금속가공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 문래 기계금속가공 단지에는 1,657개소 업체에 4,095명이 종사하며, 업계 1개소에 평균 2.45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저는 영등포구청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래동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많지요. 그리고 공장 밖입니다. 공장 밖은 아마도 문래동 밖에서 문래동 공장을 보는 모습일겁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문래동 공장들은 도심 내에 제조업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률로 해석을 했습니다. 증감률로 해석을 한다는 건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밖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모든 게 다 하락세냐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았습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체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들어왔습니다. 문래동을 아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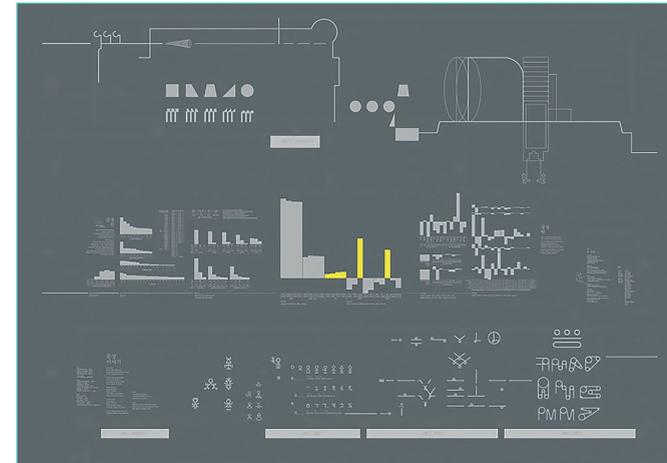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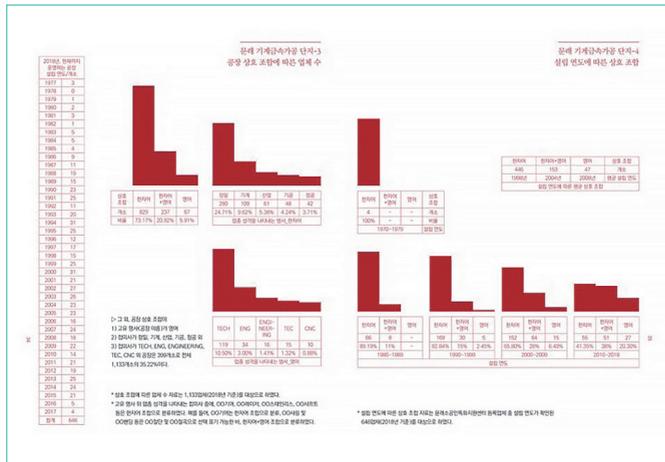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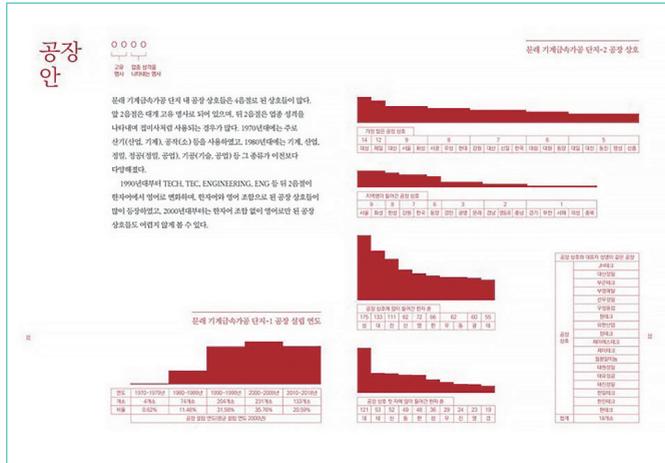
공장 내부에서 사정을 아는 분들은 가족근로자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괜찮다. 법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래동 내에 단독 건물 공장도 있지만 사무실형 공장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문래동 전체의 제조업을 봤기 때문에 그 또한 포함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이제 공장 안입니다. 공장 안은 문래 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자료를 보고 공장 상호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장 상호들을 보면 지역명도 있고, 대표자 성명도 있고, 또는 자녀들 성명도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수경이잖아요. 제 이름을 흔하게 들어보셨죠. 그런데 수경이란 이름을 들어보면 3, 40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유행했다는 거죠. 요즘 중학생들은 수경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 상호도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흐름 안에서 보면 대, 태, 한성 뭐 이런 글씨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글자, 상호는 대선과 제일입니다. 공장 대표자의 바람 같죠. 크게 이루고 제일 가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조합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성 정밀이면 한자 어와 한자어의 조합으로 앞에 두자는 고유명사고요. 뒤에 접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운데 좀 들어가면요 태성 테크가 됩니다. 앞에 한자어, 뒤에 영어가 되죠.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태’자를 별 태로 쓴다고 하면 스타 테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 대표자들의 연령층이 변하고 있지만, 이 흐름 정도로 빠르진 않습니다. 이것은 제조 경력 20년차의, 60대 대표자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건 스페이스나인에서 했던 전시의 장면 컷입니다. 많은 자료들이나 공장들에 대한 이미지나 해석하는 자료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이해가 되는 건 기본 기간에 동향 조사라는 건, 저처럼 활용할 사람을 염두하지 않고 하기 때문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진 조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작업하는 형식이 어떤 게 있다 보다 그 삶 안에 있는 그들이, 성실하고 노력하는 이들의 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구요.

물론 이런 것들이 조사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그래픽과 숫자 같은 부분들은 많지만 삶의 따뜻함을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구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기록

김진
작가



영상보기

우리들의 이야기



일상에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나 사라지는 것들,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삶들을 보여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대안예술공간이포>에서 문래동 철공촌에서 단단하게 삶을 가꿔온 여성인 J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창작한 커뮤니케이션 아트와 설치 예술로 구성된 ‘이곳에 데메테르가 있다’ 전시를 발표했습니다.

대표활동

- 이곳에 데메테르가 있다, 대안예술공간이포, 서울 2019
- 사물이야기, 갤러리 유니온, 서울 2017
- <HANDS + 확장과 공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옛 청주연초제조창, 청주 2015

“사물 이야기”



저는 미술작가이고, 문래동에 와서 아카이브 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래동에서 작업한 사물 이야기하고 그녀의 목소리라는 두 개의 아카이브 작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사물이야기 프로젝트는 문래동에 있는 다양한 이웃인 철공소 사장님, 다방 사장님, 식당 사장님 등을 만나서 그들의 공간에서 가장 소중한 사물을 골라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아카이브한 작업이고요.

나의 성역의 손안봉 소매깎자

성역의 손안은 1985년에 쥐름스름 거발에
성공한 뒤로 24년 첫번째 지바공 기출입니다
공원인 것인 것때문에 제이 성역의 손안에는 별다른 자비중
이유는 1992년 제이 편입된 살다가 갑자기 복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이 믿고 남이 취직시켜 줄수 있는 것뿐
신안봉은 기계 발명가였지만 그와도 맞닿을 서지 않고
덕지도 잘지도 못지도 기계 발명에만 온정력 다했습니다.
자음도 그이와 성역처럼 능력이 남지다
비노날 그이와 취직시켜줄 발명가였어 생각되었고 기가끼
머음에 제이 손안으로 사지 받쳐서 되었습니다
고에서 취직지든 성역의 손안이나 자음없음
제이 성역의 손안에서 취직은 잠수 수에서 첫직기를
발명지었을 때부터 다 좋은 날이 있어 왔으면 좋거나
공으로 감동있는 자음과 삶의 여차 성역서
구분해 비어온 이후에도 오지않는 남과 질투서다

*부모기계' 서장님의 사물이야기

처음에 사물이야기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는 그냥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풍부한 이야기를 좀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자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사물에 이름을 짓고 사물의 주인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설명하다 보면 주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카이브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가 손글씨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손글씨로 이야기들이 순환되다보면 타인의 서사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전해지지 않을까 했어요. 오늘 제가 사물이야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어떤 사물과 어떤 이름들을 지어주셨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두 번째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시작 배경

빈집의 조화냉군



“그녀의 목소리 ”

이제 두 번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남성 노동자 중심의 철공소에서 일상을 가꾸는 사람들, 여성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여성들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제가 문래동에서 가정집들부터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사물이야기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저하고 인연이 닿았던 짜꾸미식당 사장님께서 많이 자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에서 사장님하고 친분이 많이 두터워졌는데, 어느 날은 사장님이 저한테 미술작가니까 자신에게 그림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미술 작가이지만 그림을 못 그립니다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자기보다는 잘 그리니까 내가 식당을 하니 밥은 얼마든지 살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매개로 사장님하고 더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무슨 운명인지 약속을 하자마자 사장님이 반평생 일구어 오신 식당이자 거처인 짜꾸미 식당을 한 달 만에 쫓겨 나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동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고 사장님의 이야기를 하염없이 듣는 시간들로 채워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네만 크로커 이혼
민생이 헛웃할 때면 안양천으로 간다
장미밭에 네물골로니 보낸다
네발로 배를 한 움큼 짊어 온다
밤에 불어 불로 희망을 품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짜까지
행운이 찾아 오지 않은 것이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제게는 감사한 일이고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이 여태까지 책이나 여러 매체, 유명인사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기록을 해서 아는 사람들과 공유해서 이야기가 순환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작업이 ‘그녀의 목소리’라는 프로젝트구요.

쭈꾸미 식당 사장님의 어록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하고 그 이론에 걸맞은 그림을 함께 아카이브한 작업이구요.

사장님이 해주신 귀한 이야기가 저는 마치 철학자가 해준 말 같아서 제가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작업의 프로세스는 제가 사장님께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감동적인 구절들을 정리를 먼저 하고 사장님한테 그 구절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가 맞는지 사장님이 검토했거든요. 하나 하나 본인이 수정하고 손글씨로 적어주셨구요.

시간이 지나서 사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싶을만한 여유가 생기셨을 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론에 걸맞은 세트가 될 수 있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요고요. 사장님이 그 이론에 어울리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셔서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과연 문래동에 이 쭈꾸미 식당 사장



아성리 이론
꽃이 필 때엔 태양을 보아 내선과
분주한 새를 비웃고 나무는 여명하듯
빛그다
누가 울까 곡지도 없는데 온아침으로 다람쥐
타버렸다
이 비석들도 이렇게 만년집 을 쓰면 뭘
왔어 내도 다시 물어서라도 쓰면 어
혹은 장문인 자는 봄이 되면 대지 피지만
만안도 인생은 너무 너무 짧아
다시 물어서게가 너무 힘들다
오래도 다시 물어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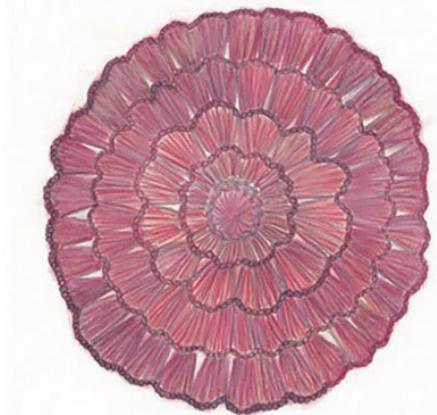
신생아 이론
물다보면 필요로 만어진 때가 있다
조용한 밤에 햇빛이 다시 나왔다면
생각 하면 된다
우회 모두 밤에 햇빛에서 내세울 자부심
공을 뒤집은 지은 잊어서면 한 위
는 함 배웠듯이.
모순도 다시 가까운 사랑하면 된다
어차피 죽으면 모두가 한으로 돌아갈
인생도 누가 그리 두려운가!



도시의 이론
우리는 도시의 커리 **공리**란다
별다른 생각 혼자서 어떻게 됐든
계란 프라이와 햄도 물이든 케첩도 부인
생선도 부려야 먹을 만하네.
가죽도 그릇과 한 상냥한 죽어라
명심록이 살면 힘들다
가족도 돈으로 채워서로 도둑이
함께 맞들내어 한다
내일 밤 너는 햄 너는 계란 너는 소스
그런데 내 인생은 빵 한 조각
위로 줬지



손 이론
근육도 감에서 취할진.
손으로 밥만 잘 해먹고 살면되지.
나는 이혼으로 삼시세끼 밥도 해먹고
밥만 대식해서 산책도 기억은
저녁까지도 나를 지키며 살았었다
그생 평이한 너은



밥 이론
밥을 먹어도 삶이 단온와
밥을 대물수 땀 쓰게할 도 손에
잡리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럽다
대입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쌀을 먹으면 내일이 생장나서라도
살아야지
후 이 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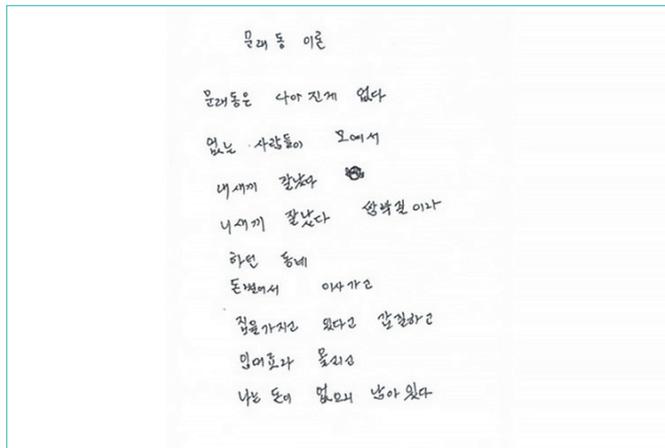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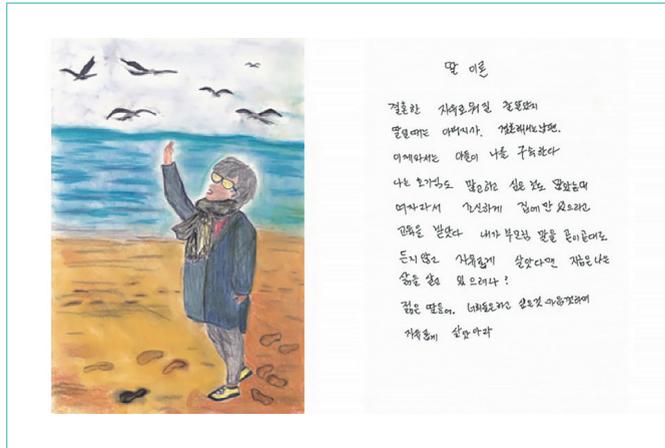
‘기억과 기록의 예술’

님만 이런 귀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을까 생각했죠. 걸으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문래동 곳곳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좋은데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저는 이 자료가 현실적인 문래동에 대한 지역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카이빙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테크 사장님이 해주셨던 한 구절이 제게 답을 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한때 부흥했던 문래동도 점점 쇠퇴하고 조만간 시대의 뒤안길로 물러나겠지요. 그때가 되면 문래동도, 이곳에서 일했던 저희들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질까 슬퍼집니다.’

이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게 누군가가 애써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휘발되어버릴 이야기라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또 아카이브 작업에 처음과 끝 그리고 그게 완성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경청이라는 태도가 끊임없이 요구된다고요. 그래서 아카이빙 작업이 의미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구요.



아카이빙 활동의 의미

마지막으로 아카이빙 활동과 관련된 저의 과제는요. 기록하는 저의 태도인데요. 아무래도 기록하는 저를 통해 이야기가 한 번 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타인을 대상화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면서 만나고 아카이빙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카이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과거), 살고 있고(현재), 살아야 하는지를(미래)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이 행위가 유독 소중한 이유는 “경청”이라는 아름다운 태도를 통해서만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카이빙 활동과 관련된 나의 과제

기록하는 자의 태도

아카이빙은 타인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한 번 거쳐서 다듬어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사람이나 공간을 만나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 타인을 대상화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타인과 공간을 어떠한 시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나만의 신념을 쌓아가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다.

1부 기록

김진주

미술작가,
기억하는 용기 대표



영상보기



양극성과 파편성, 수행적 발화, 기억과 아카이브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미술작가, 큐레이터, 시각예술문화 연구자, 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으로 ‘기억하는 용기’를 운영하며,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 기록 작업,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 마을 아카이브 지원사업 ‘선유리는 매일매일’을 기획, 수행했습니다.

대표활동

《고향》(서울시립미술관, 2019~2020)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경기상상캠퍼스, 2016)

《합창과 독백》(수원가족여성회관, 2014)

캠퍼스, 여성, 나무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생산도시리빙랩 포럼 ‘기억과 기록의 예술’ 발제자료 2020.2.14.

캠퍼스, 여성, 나무

김진주(미술작가)

저는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작품을 계속 만들어서 전시 위주보다는 어떤 영구적인 성격, 조사하거나 찾아가는 과정, 이야기를 찾는 과정에 그 이야기들을 더 포함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기억과 기록이 관여되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나는 다큐멘터리리스트도 아니고 아키비스트도 아닌데 어떻게 기억과 기록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되는가. 이것들을 나눠보고 싶은 첫 질문으로 꺼내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어떤 기억과 기록과 관련된 일을 의뢰 받아서 하거나 혹은 작가적 관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기억하는 용기’라는 굉장히 사업자 이름으로 걸맞지 않은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의 제목을 보시면 발표 제목도 있고, 제 이름도 보이고, 오늘의 날짜도 보이죠. 이렇게 제목, 생산자, 생산일자, 기록, 어떤 제도적, 학문적인 요건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한 캠퍼스가 있습니다. 수원에 위치하고 있구요. 수원역에서 한 1.5km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예전에 서울대 농대, 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하죠. 그 캠퍼스가 있었던 곳인데 이 캠퍼스가 있기 전에도 이곳은 농업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흐르던 곳이었어요. 이곳이 캠퍼스였으니까, 여러 학교 건물들이 있고 그걸 아우르는 숲이 자리하기 마련인데 그런 장소가 변화하는 일이 생겼어요.

‘기억과 기록의 예술’

발표자료 사진처럼 공사를 하고 벽도 뜯어내고 새로운 벽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 공간에 있었던 이전의 흔적들은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바뀐 공간들은 이렇게 새하얗게 깔끔하게 칠해져서 어떤 덧칠이 됐는데요. 저는 이 벽속의 이야기들을 보존해야한다는 의식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계기는 이게 그냥 어떤 공간이 산업적 공간으로 다시 탄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만드는 생산의 공간으로서 만들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새롭게 만들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고민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살았던 기억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사라질까, 자기가 들어와서 사라질 것들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소위 문화재생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이나 기획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시도 하죠.

문화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예술가가 기억과 기록의 작업에 투입되는 아주 단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는 아키비스트나 기록전문가가 아닌데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이 화두를 한 번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2016. 1. 8. 농원예학관 실내 공간, 2층 교실, 조적, 리노베이션 과정. 사진: 김진주



2016. 2. 24. 농원예학관 실내 공간, 1층 교실, 리노베이션 과정. 사진: 김진주



2015. 9. 15. 농원예학관 실내 공간, 바닥에 달력, 리노베이션 이전. 사진: 김진주



2016. 2. 12. 농원예학관 리노베이션 과정. 사진: 김진주

수원 서울대 농대 캠퍼스에는 먼지들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비워져있던 공간이었고요. 이렇게 방치 돼서 그 정지된 시간은 2003년 달력의 한 장면으로 굳어져버린거죠. 저는 작가로서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사물들, 편린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업한다는 건 뭘까. 기억과 기록을 작업한다는 것, 찾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자로 첫 태도라면 그 과정을 어떤 산물로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정을 포함시켜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구요. 이 아카이브 혹은 기록이 되는 과정 자체를 다시 역순으로 밝혀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형적으로 혹은 조형의 행위로서 수행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기록이 되려면 일단 수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시 재생되어야 되겠다. 또 재생이 된 이후에 재생이 제시하는 회복이라는 단계, 그 다음 회복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보존 활동. 이런 다섯 가지 단계, 다섯 가지 방법이 기억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작용들이 아닐까 싶었던 거죠.

‘기억과 기록의 예술’

그래서 완성된 이 작업의 제목을 ‘푸른 시간에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푸른 시간은 푸른 지대라는 이 장소,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이 장소에서 탄생됐던 거구요. 서울대 농대 학생들이 이 지역을 푸릇푸릇 상록이라는 단어로, 푸릇푸릇한 장소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1700년대 정조가 여기에 왕실의 밭을 만들었던 것부터 일제강점기 때의 굴절이라던가, 농업학교가 서울 뚝섬에 있지 못하고 수원에 오게 된 이유가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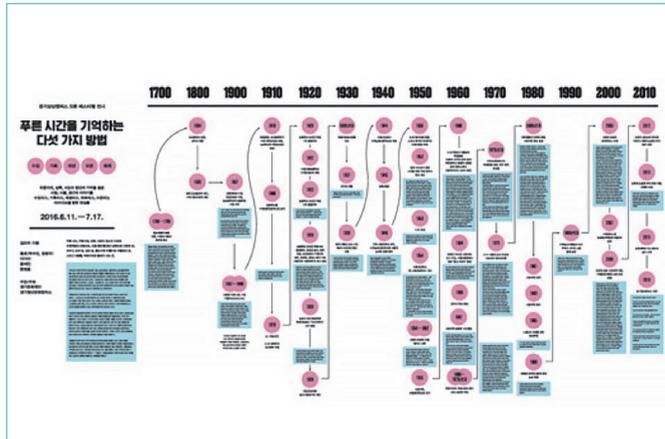
‘푸른 시간’은 ‘푸른지대’와 ‘청년의 시간’이다. 다시 말해, 과거를 떠올리는 ‘기억’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이다. 과거, ‘푸른지대’는 원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서문캠퍼스 푸른 건너편에 있었던 별기밭 일대의 지명이었다. 그 ‘푸른’은 청춘들이 활기를 불어넣던 성장(호르, growth)의 공간을 상징하는 ‘상록(常綠)’과 ‘뜻이 같다. ‘푸른차대’를 오기며, 농생대와 수원 청년들은 공부하고, 일하고, 노래하고, 사랑하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지금, 이곳을 ‘경기청년문화창작소’로 다시 열며 마련한 볼 전시는 그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 전시는 본래 작년부터 진행해온, 농생대 농민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의 기억을 추적하는 기록 및 조사 작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억에는 항상 기억과 비활성기억의 두 종류가 있다. 비활성기억은 현재와 연결되지 않고 저장상태에만 놓여있는 기억이다. 항상 기억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상태의 기억이다. 두 기억은 공존한다. 인간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아카이브 속에 보존된 것들처럼 기억은 변형되지 않게 오롯이 역사적으로

저장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자리에서 고집내내 살아있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기억의 자리바꿈, 순환작용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야기이고, 이 전시는 이야기를 통해 푸른 시간의 기억을 호출한다.

기억을 불러내는 이야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사람들은 이야기로 기억한다. 마치 반 말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본 것을 그랬다가 자꾸고 또 그린다. 그다음에 사람들은 장소로 기억한다. 마치 머릿속에 반말과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어떤 빌, 어떤 것들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다시 떠올릴 때 꺼내어 본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 음식물처럼 기억을 소화하거나 배출한다. 처음 겪었을 때 흡수했던 기억은 계속해서 회상을 통해 끊임이보면 단맛을 느끼기도 하고, 단맛이 쓴맛으로 변하기도 한다. 푸른지대의 이야기 또한 나중에 생각나는 그 맛도, 찾아보는 사람도 되고, 달콤 씁쓸한 맛도 느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전시는 디자인, 설치미술, 영상, 사운드로 작업하는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푸른 시간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리플렛 - 전시 서문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타임라인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전시 장면 - 수집하기(설치/조각)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전시 장면 - 수집하기(설치/조각)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전시 장면 - 회복하기(아외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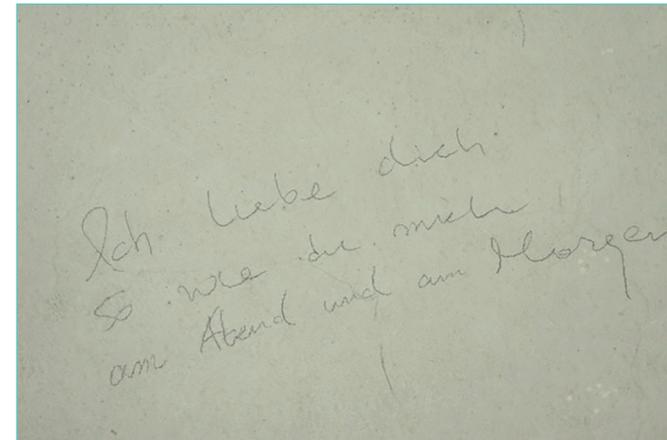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로 넘어오면서 농대가 이곳에 계속 존재하게 된 일들. 중간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캠퍼스가 상실한 일들. 이런 것들을 연표로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시각적인 조형언어로 뭐 설치, 디자인, 영상 그리고 사운드 등을 통해 제가 제시했던 수집 기록 재생 회복 보존이라는 이런 가치들을 각각의 조형적 언어들과 배치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꺼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 캠퍼스에 있는 큰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자라고 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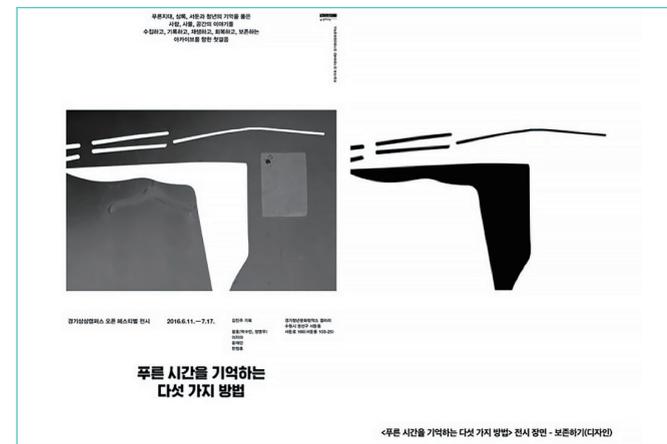
‘기억과 기록의 예술’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전시 장면 - 회복하기(아외 조각)



2015. 9. 15. 농원예학관 실내 공간, 1층 교실, 벽 위 낙서, 리노베이션 이전. 사진: 김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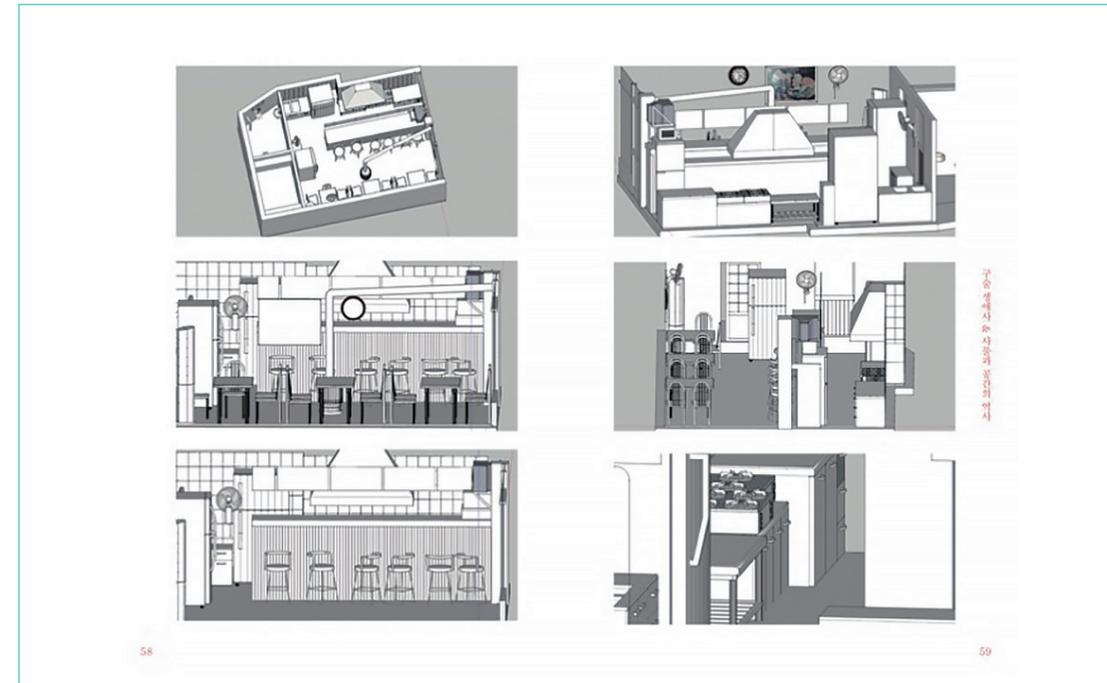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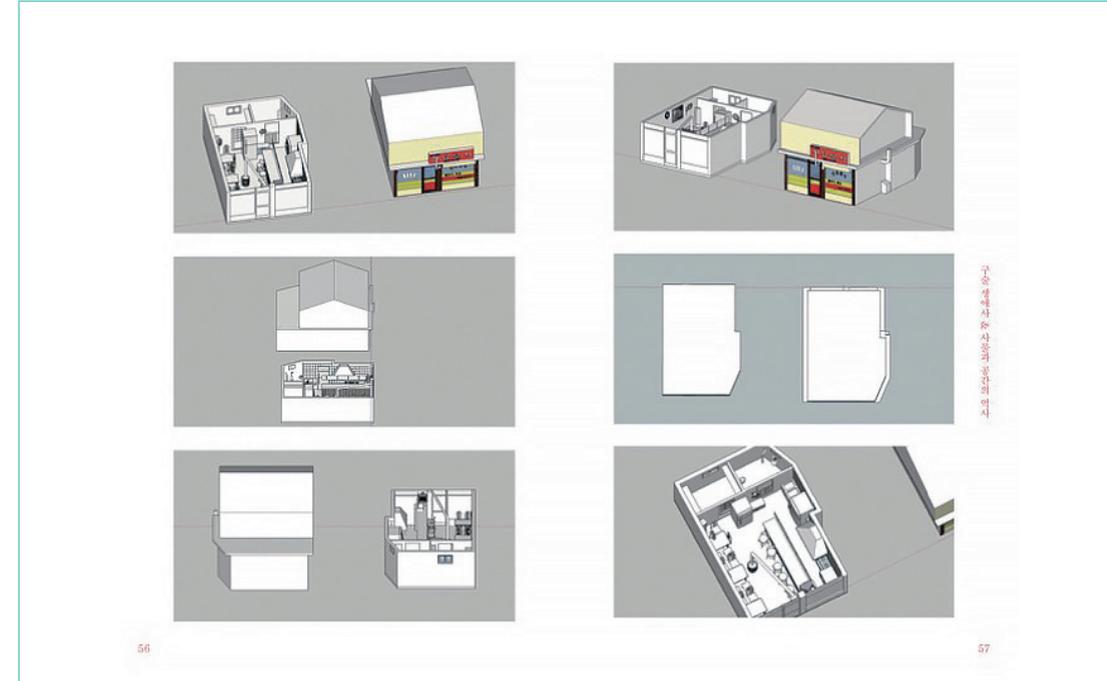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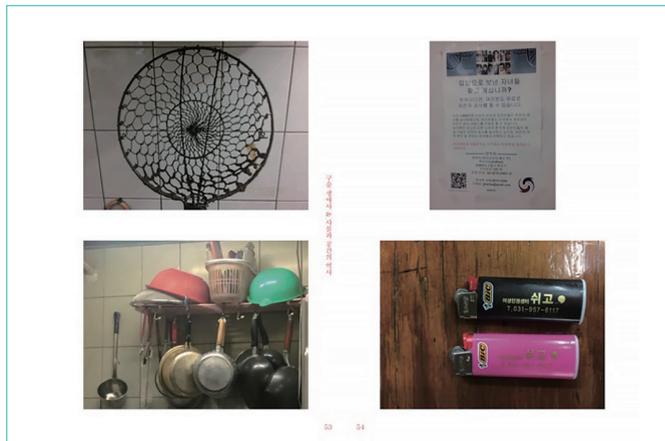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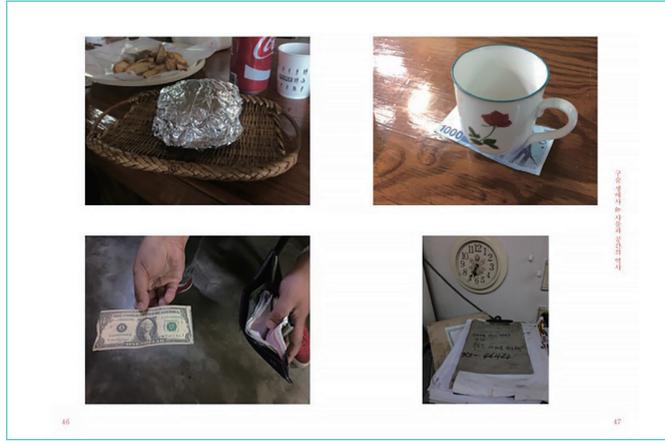
〈푸른 시간을 기억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전시 장면 - 보존하기(디자인)

이 나무 밑에 작은 돌은 앞서 본 사진 속에 있던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물의 한 조각입니다. 계단이었던 부분인데,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졌어요. 이 곳의 오른쪽에 보면 글씨가 쓰여 있는데요. 캠퍼스가 새로운 벽으로 바뀌기 이전에 썼던 사람들의 어떤 필체를 응용해서 만들기도 했구요.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부재하는 것들을 전시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음과 양 혹은 흑과 백, 혹은 이것이 부재하는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과 기록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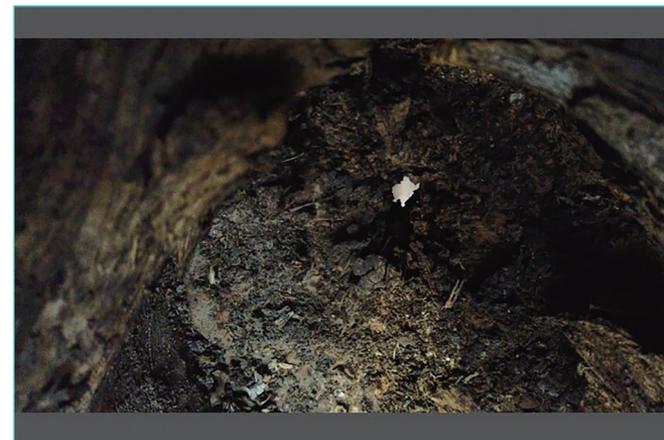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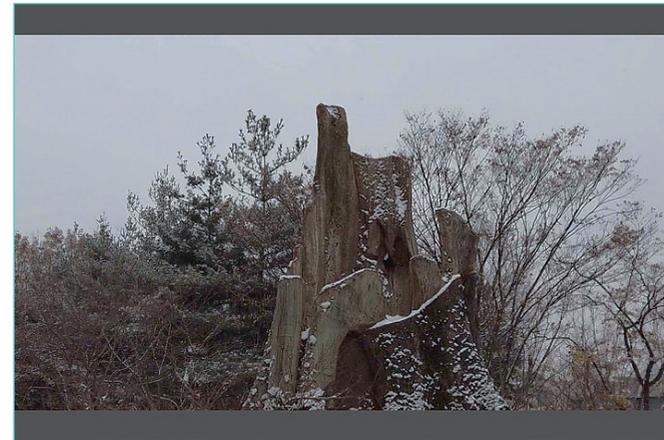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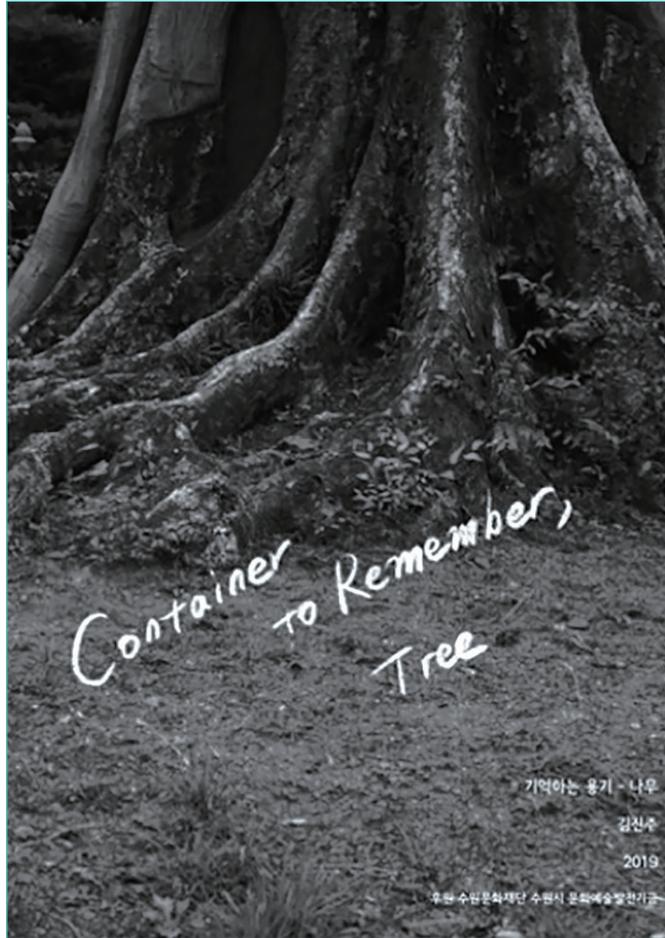
2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작은 도로인데 이 공간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이 작업에서는 이 분식집 자체를 여성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장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 공간 자체를 3d 모델링으로 바꿔 보기도 했습니다. 건축하는 학생들과 함께 계측을 다 해서 옮겨봤는데, 사라질 것 같아서 옮기지만 당장에 이렇게 회색의 선과 면, 수치로 옮겨진 이 기록들이 이 삶을, 어떻게 이 기억을 온전히 옮겨주고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중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예술이 기억과 기록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제가 최근 하는 작업은 나무 보수에 대한 작업이에요. 수원 영통에 단 어린이 공원이란 곳이 있고 그곳의 보호수가 2-3년 전에 강풍으로 쓰러져서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 보호수 아래에서는 산신제를 지낸다던가 이렇게 사라진 마을의 전통 공동체의 의리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보호수가 보존되는 상황을 보면 보호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다보면 나무는 또 자라고 있고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늘어가기 때문에 안은 비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행위일까.



그것을 쳐 낸 행위일까 그대로 두는 행위일까. 그대로 두고 혹은 지속하기 위해서 오히려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들, 여러 질문들을 던져주는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수가 쓰러진 이후에, 이 사진은 잔재목이라고 남아있는 등치 기둥들을 보존을 해 봤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깊더라구요. 그래서 기억과 기록을 예술에서 다루는 작업은 이런 편린들, 작은 조각들 속에서 굉장히 거대하고 깊은 어떤 세계, 기억들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부 기록

최연희

정말기록당 활동가



영상보기



성북구 정릉에서 마을 기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참여와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담은 다양한 지역의 주민공존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활동

- 현 정말기록당 상임활동
- 현 NPO스쿨 선임연구원
- 전 성북구 마을코디네이터

정릉 마을 기억을 기록으로

**정릉 마을
기억을 기록으로**

2020. 2.

최연희
정말기록당 상임활동가

우리동네 정릉

- 정릉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서북쪽에 위치한 동이다. 북한산성 남장대(南將臺) 남쪽 일대에 있으며, 북동쪽의 경복궁 미아동, 서쪽의 중로구 평정동, 남쪽의 돈암동과 접해 있다. 동 이름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이 있어 붙여졌다.
- 가장 오래된 이름은 살한이. 삼국시대 이전인 마한(馬韓)시대 정릉 골짜기를 넘어 오고 가던 짐꾼들이 이 골짜기에 들어서면 ‘살을 에는 듯이 추운 한데(바깥)라며 우리말 살한이라고 불렀다. 한자음으로 사을한리(沙乙蘭里), 사아리(沙阿里)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정릉1동 남서쪽으로는 아리랑고갯길이 지나고, 동서로는 정릉천을 복개해서 확장된 정릉길이 북악터널을 지나 새검정으로 통한다. 길음뉴타운과 접해 있다.
- 정릉2동에는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이 있어 부근의 마을을 능말이라고 부른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 정릉역이 있다.
- 정릉3동은 북한산 기슭에 있어 서북쪽은 산봉우리가 솟아 있고, 능선 사이의 계곡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 박경리와 김두한 가옥이 있는 정릉골, 손씨가 많이 살았다는 손가정, 정릉시장, 정든마을과 삼덕마을, 국민대학교와 건너편 배밭골이 있다.
- 정릉4동에는 북한산 탐방안내소, 청수장, 버스 종점, 우이-신설 경전철 북한산 보국문역, 서경대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경극사를 비롯한 많은 시설이 있다.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 ‘버스타고 정릉으로’

- <개요>
- 기간 : 2013년 6월 ~ 11월
 - 제목 : 정릉마을 교통편 이야기 ‘버스타고 정릉으로’
 - 주최 : 정릉마을기록사업단(대표:전미희)
 - 참여 : 정릉 마을단체 ‘우리동네 능말’ 회원, 대학생, 주민 등
 - 활동 : 기록조사, 옛날 버스 전시(서울마을박람회, 정릉버들잎축제)
- <목적>
- 주민들의 삶 속에 살아 있는 우리 동네 정릉의 옛 모습 찾기
 - 시내버스 1번 종점의 실제 기록과 주민 스토리 발굴
 - 탈탈버스에서 경전철까지, 변화한 정릉의 교통편 추억 공유
 - 마을공동체 기록을 관리와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성 환기

서울시 마을박람회 이야기전시회(2013) -정릉 버스 종점 이야기



저는 영등포 윗동네 성북구에서 왔습니다. 문래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좀 스쳐 지나가고 했는데요. 2012년부터니까 올해 한 9년차 된 것 같아요. 정릉에서 주민과 함께 마을 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정릉이란 동네를 소개할게요. 정릉은 동이 4개예요. 1, 2, 3, 4 네 개의 동이 있어요. 대부분 몇 동에 산다고 안하고 대충 ‘정릉 산다’ 이렇게 통 치는데 인구가 19만 명 쯤 됩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동네는 아니고요. 지방의 한 도시 하나에 해당할 만큼 큰 데도 좀 아기자기 한 시골스러운 풍경들이 좀 있습니다.

동네 이름은 능이 있어서 정릉이에요. 능이 있는 동네는 능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저희는 또 특이하게 북한산이 있고 북한산에서 흘러가는 맑은 계곡 물이 있어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사신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또 성북구에는 대학이 많은데 정릉에만 두 개의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도 많이 있고, 전통시장과 같이 연계된 여러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 중 첫 번째는 서울 시내버스 1번 종점이 정릉인데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수지와 이제훈이 타고 다녔던 그런 버স্য요. 정릉 출발 또는 정릉 종점행 버스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기록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억과 기록의 예술’

오늘의 주제가 기억과 기록 그리고 예술인데요. 정릉의 기록 활동은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술까지 넘어가지 않고요. 출발하는 측면도 예술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가 어, 저거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어 저거 우리도 해 볼 수 있겠는데 하고 문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2013년도에 주민들이 모여 기록하는 활동을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서울시 시범사업을 가장 좋아한 곳이 성북구인데요. 2013년에 처음 기록시범사업을 했을 때 성북구 중에서도 정릉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무엇을 조사할까 의논을 하다가 우리 동네가 시내버스 1번 종점이 있는 동네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기록이 없더라고요. 버스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음 회사로 넘어가고 할 때 이전 회사의 기록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저희가 못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사람을 찾자고요. 그래서 정릉에서 버스 운전을 하셨던 주민을 찾았어요. 1960년도부터 버스를 운전 하신 박기현님인데요. 지금도 정릉의 살고 계신 주민이세요. 사진에 보이는 저 18세 청년이 당시의 기사님이고요. 당시 버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의견이 분분해요. 택시다 버스다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운전했던 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듣는 장소로 옛날 버스를 갖고 왔어요. 영화 제작소에서 빌렸는데 견인 비용만 100만원 들었어요.

함께 자료를 조사했던 주민들이 안내양 복장을 하고요. 의외로 서울 시민 중에 정릉 종점을 기억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서울광장에서 주민과 다른 지역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18세 소년이 지금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되셨죠. 버스 운전 이야기를 통해 옛날 정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구요.

정릉 마을아카이브 '정릉의 기억과 기록'

<개요>

- 기간 : 2014년 6월 ~ 11월
- 제목 : 정릉마을 이야기 전시회 '정릉의 기억과 기록'
- 주최 : 정릉마을기록사업단(대표:전미희)
- 참여 : '우리동네 능말' 회원, 대학생, 도서관, 주민 등
- 활동 : 마을기록 워크샵, 기록조사, 도서관 이야기콘서트, 기록책자 제작

<목적>

- 다양한 주제와 계층의 마을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이야기와 유산 찾기
-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라질 주민의 삶의 기억을 마을의 기억으로 환원
- 주민 삶 속에 늘 함께 있던 이웃과 공간을 재조명
- 자긍심을 찾는 자발적인 주민 활동으로 정릉마을의 공동체성 형성 촉진

정릉마을기록사업단이 찾은 자료들

정릉의 기억과 기록

- 모닝베이커리
- 교수단지 권계숙
- 은성슈퍼
- 대원서점
- 정릉마을
- 정릉시장 사람들
- 동방부동산



‘기억과 기록의 예술’

이때 재밌어서 다음 해에도 또 해보자 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 다음에는 동네의 오래된 가게를 찾아보았어요. 오랫동안 주민들 삶 속에서 같이 터를 잡고 이웃으로 있었던 그런 가게들을 찾아 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빵집, 슈퍼, 서점, 부동산 이런 곳을 찾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성북구에 구립도서관이 14개나 있거든요. 도서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 전시회도 하고 기록 책자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기록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2년인데요. 정릉 지역에서 첫 번째로 마을 잡지 ‘우리 동네 능말’이라는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에 선정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잡지를 만들면서 기록 활동을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에 숨어있는 주민들의 인생 이야기들을 채웠어요. 왜냐하면 이 작업의 경우 실제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었는데 이분들은 기억만 갖고 있지 기록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에 집중하며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동네의 많은 기록 활동이 있었어요. 저희 말고도 청년들의 작업, 시작에서 하는 활동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를 다 모아보자 해서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고 선정돼서 책을 한권 만들었어요. 보통은 기획사를 섭외해서 원고 맡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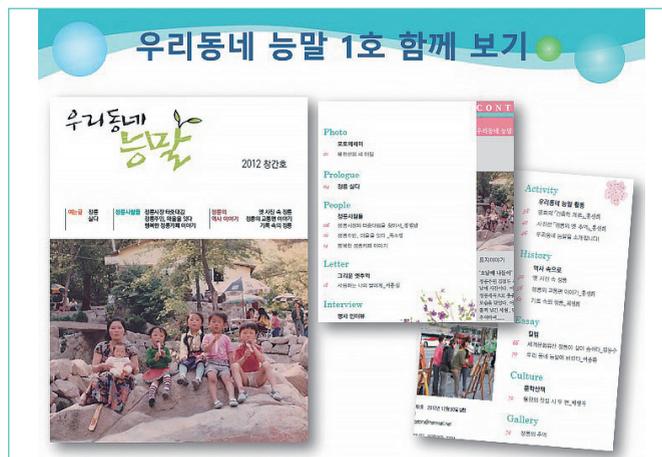
정릉 마을잡지 '우리동네 능말'

<개요>

- 기간 : 2012년 8월 ~ 12월
- 제목 : 정릉 마을잡지 '우리동네 능말'
- 주최 : 우리동네 능말(대표:최연희)
- 참여 : 정릉 주민 20여 명
- 활동 : 마을기록조사, 주민인터뷰, 지역 취재, 옛 사진전 등

<목적>

- 우리 동네 정릉의 마을기록 찾기
- 오랜 이웃들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스토리 발굴
- 정릉의 옛사진을 통해 추억 공유
- 마을공동체 주민 활동 활성화



정릉 스토리북 제작 - '정릉 마을 한 바퀴'

■ 예산 : 서울시 시정참여예산 주민 제안사업 2천만원
■ 제작 : 리소스북, 스토리북, 마을지도 등

2017 정릉 마을 리소스북

진행 개요

- 주민워크숍 1차 - 마을탐방 & 지도만들기
일시 : 2017. 11. 8(수) 10시-12시
장소 : 산들마루
내용 : 정릉 마을 탐방, 마을지도 내용 표시, 스토리 발굴 등
- 주민워크숍 2차 - 마을을 기록하다(강연)
일시 : 2017. 11. 14(화) 14시-18시
장소 : 청수도서관 3층
내용 : 옥수동 마을기록자 지금은 없는 동네 장삼미 작가 초청 강연, 마을기록 의미와 목적 및 방법
- 주민좌담회 2회 - 정릉의 옛 이야기
1차 2017. 11. 5(일) 12시-15시 허만선, 안한호, 박영준, 김청근
2차 2017. 11. 6(월) 17시-20시 정재호, 장호창
내용 : 정릉 토박이 주민들의 숨은 정릉 옛 이야기

정릉 스토리텔링북 함께 보기

정릉 마을 한바퀴

Part 1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3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4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5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6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7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8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9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0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1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2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3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4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5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6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7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8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19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0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1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2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3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4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5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6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Part 27 정릉의 마을 이야기 27

디자인을 의뢰하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무슨 항목을 넣을지 일일이 결정하자고 하셔서 진짜 어렵게 진행했어요. 20차례 이상 회의를 하면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정릉에 5개나 남아있는 산신제 등 그런 이야기 자산을 포함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2012년부터 마을의 곳곳에서 펼쳐진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모아 보자 해서 2018년에는 정릉 주민들의 기록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정식 단체도 아니고 그냥 기록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관, 단체, 주민, 일반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 강좌, 마을 아카이브 강좌도 같이 진행했고 기록 전시도 다섯 번 정도 했어요.

동네에 있는 공간에서 기록 교육을 받고요. 정릉에는 공유할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조금 넓은 교통광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주민들 하고 같이 옛날 전시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성북구는 구립 미술관도 있지만 구립 영화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 로비에서 정릉 지역의 여러 기록 작업들 했던 것을 일반 시민들 하고 나누는 프로젝트들도 했습니다.

사진은 한 번 인화해두면 계속 전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나 등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발간하는데 조금 더 집중했던 측면이 있어요.

‘기억과 기록의 예술’

그리고 2019년에는 청수 도서관이라고 정릉에 있는 도서관이 개관 5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담벼락 따라 골목 사진을 전시해보자고 도서관에서 아이디어를 줬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일일이 다 붙이고 볼품은 없었는데, 주민들이 같이 준비한 것이 정릉의 큰 특징이에요

정릉은 봄 하고 가을에 주민들이 같이 준비하는 축제가 2개가 열려요. 그 중에 저희가 마을 기록하는 부스가 있는데 저희가 세대별로 놀이 일을 했던 기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들, 세대별로 다 등장하기도 하고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저희가 조사해서 실제로 그 세대들이 무대 위에서 자 모두의 놀 권리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뭔가 같이 토론했어요.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했구요. 올해도 5월 말 6월 초에 또 진행해요.

가을 축제 때는 정릉이 신덕왕후 강씨의 능, 정릉이 있어서 지명이 유래됐는데요. 10월이 되면 정릉에서 다 같이 준비하는 버들 잎 축제가 있어요. 어가 행렬도 하고 그 축제 한 칸에서 저희는 마을 기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했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이 다 함께 전시물을 설치하고 설명도 하고 철거까지 해요. 저희가 사서 고생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에게 정릉 지

정릉 마을아카이브 주민네트워크 ‘정말기록당’

- 취지 : 정릉의 마을기록 기준을 주민들이 만들기, 정릉을 기록하기
- 참여 : 정릉마을, 정릉마을기록사업단, 우리동네스토리코어스, 정릉복지관, 청수도서관, 정릉도서관, 성북문화재단,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마을기록가 개인 등
- 기간 : 2018년 3월 ~ 현재
- 활동 : 주민강좌 3회, 관계자 좌담회 6회, 정릉연표 만들기, 마을아카이브강좌 8강 진행, 마을기록전시회 5회 개최, 정릉 마을스토리북 발간(2019) 마을투어 진행, 박물관 및 기록전시관 견학 등

정릉 마을아카이브 교육(2018.8~10)



정릉 버들잎축제 마을아카이브 전시회(2018.10.27)



역의 역사 등을 알려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관심이 많아요. 옛날사진 하면 어른만 관심 있을 것 같지만 아이들도 나 저거 뭘지 알아 하면서 엄마 손을 이끌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만든 자료는 2019년 12월에 나왔어요. 청수 도서관에서 제안해주셔서 작은 책자 하나가 나왔는데요. 슈퍼가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구멍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어요. 60년 동안 정릉에서 살면서 친구로 살아가는 70대 어르신 두 분의 이야기를 구술로 기록했어요. 이 책은 성북구 청수도서관의 비매품이어서 와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릉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했던 건 바로 정릉마을네트워크 때문이에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마을 활동하는 여러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소식들을 나누어요. 이 모임에서 축제를 같이 준비해보자 아이디어가 나와서 앞에 말씀드린 축제를 했었고요. 기록 활동하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 보자 해서 모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록 활동을 한다면 그냥 명분이나 사명감만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비밀 언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활동들을 좀 묶어 주는 게 있으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아 이것 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요.

아고라-정릉 마을기록 전시회(2019.1.26)



청수도서관
+
정말기록당

정릉 마을
골목사진
전시회

(2019.2~3)

골목, 정릉 3동과 4동 골목을 중심으로
정릉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청수도서관 5주년기념
정릉마을기록 초대전

-오프닝: 2019. 2. 16(토) 오후 2시
-전시기간: 2019. 2. 16(토) ~3. 30(토)
(※월요일 휴관)
-장소: 청수도서관



주관_정말기록당 청수도서관

정릉 더하기축제 '놀이의 추억'(2019.6.1)



‘기억과 기록의 예술’

사실 제 고민은 대상, 대상자, 대상지역 이렇게 나와 남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주체로서 기록을 하고 생산을 하고 대상화가 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우리나라는 사람 하나가 죽으면 다 이렇게 버리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어질 수가 없고 그게 가치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급한 거죠.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청산되는 기록들을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마을 기록은 공공재라고 생각해요.



2019 정릉 마을아카이브 전시
'정릉, 그곳에 가면' (2019.10.19)



정릉 마을스토리북 '정릉, 기억하다'(2019.12)
청수도서관 & 정말기록당



마을기록을 할 때 고민할 지점들

- 대상=주민, 대상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
- 의미와 가치는 누가 부여하는가?
- 주민들이 정보제공자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 주민의 이야기에는 일상이 담겨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주민의 일상은 전시용이 아니다
- 개인이 가지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청산되는 기록들을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초상권이라는 한계
- 마을기록은 공공재이자 마을의 자산이므로 마을기록의 보람, 영광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마을의 자산이기도 한 마을 기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보람, 영광은 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을 기록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직 어떤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9년이나 했지만 앞으로 한 90년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앞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릉이란 동네에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문화적도시재생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
'기억과 기록의 예술'



1부_ Q&A

첫 번째_Q.
기록은 ○○다

두 번째_Q.
기록을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기억과 기록의 예술’



사회자
박만식

지금까지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사업에 참여한 김보배, 신동혁 작가님과 문화 생산도시리빙랩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문래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수경, 김진 작가님, 그리고 수원에서 활동하는 김진주 작가님, 정릉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연희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발표자께서 ‘기록은 ○○다’라고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장에서 다양한 기록 활동들을 하는데,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지원과 태도, 방식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연희

사실 기록은 행위인데, 행위가 아니라 약간 관계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람이 하는건데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잘한다고 기록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료가 있다고 기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가고 제 손을 떠난 이후에도 이 기록이 또 그 다음 기록으로 나아가는 것 보서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록은 관계다’.



김진주

기록은 응용학문인 것 같아요. 모두 다 해야 하는 필수 코스처럼요. 삼십, 사십 넘으면 살려고 운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운동 같기도 하구요.

한편의 기록은 하다보면 착각을 하게 되는 기록 현장이나 기록을 해야지 다 남겨야지 이런데요. 오히려 기록의 실제 장면에서는 기록 연구사 분들을 봐도 그렇고 제도에서 기관이 하는 일들을 보면, 기록의 자료들을 다 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별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흔히 하는 말로 100이 생산이 되었으면 100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졌으면 한 4개 정도 남는 거라고 해서 오히려 탈락되는 것들이 많은 그게 기록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나의 선택이 분명해지는 혹은 세상의 선택이 분명해지는 게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수경

기록이 무엇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기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 하나면, 아까 발표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버려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묻히기 전 그 사람이 가진 걸을 볼 수 있는 것이 고유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공공의 지원 속에서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김보배

기록물을 만드는 것까지는 어려움은 없었는데 기록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고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만든 기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워크숍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재단에서 더 개입해 주셔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역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동혁

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록들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지속시키려면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이라고 한다면, 기록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목차에서 굉장히 작은 챕터를 맡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사회자 김진 작가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소감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진 제 영상물이 영원히 유튜브에 남는다는 게 약간 신경쓰이지만 재미있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이 메이크업 해주는 것도 오늘 처음 받아보고요. 하하.

사회자 혹시 발표자 중에서 서로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김진 김진주 작가님의 자료를 보니, 책자로 만드신 건지 제가 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김진주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북부 DMZ관련 마을 아카라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된 거였어요. 지원사업이라서 보고서 책자를 경기문화재단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요. 농생대 경기상상캠퍼스 관련해서 했던 작업들은 개별적인 보고서로만 남아있는데 내부용이지 외부용은 아니어서 그 자료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이상으로, 영등포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 기억과 기록의 예술 1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

방향

‘왜 우리는 아카이빙을 이야기하는가’

좌장: 손동유_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한국사 및 기록학 전공. 지역 및 공동체와 같은 일상을 담은 민간영역의 아카이빙 연구, 컨설팅,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분야와 협업하며 아카이빙의 지평을 넓히는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구술인터뷰 또한 주력하는 분야입니다.

대표활동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한남대 겸임교수

2019년 청주 기록문화창의도시 총괄PM

박 지 원
최 서 영
이 승 욱
토론 및 Q & A

‘기억과 기록의 예술’

2부 방향

박지원

대안예술공간이포 대표



문래예술창작촌에서 ‘대안예술공간이포’라는 비영리 전시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디렉터이며 영화, 영상, 사진, 소리, 기계장치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창작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입니다.



영상보기

대표활동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총괄기획
문래마을 변화위기대응 예술프로젝트 안티테트리피케이션 “일상생활비판”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문래 아카이브북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공감]”
문래마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도시 예술로젝트 “미래로돌아가다”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

‘예술집적형 마을아카이브’에
대한 환기

발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이번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 ‘기억과 기록의 예술’ 포럼의 제목을 보면 기록보다는 예술에 방점이 찍혀있는 듯 한 느낌이 더 강하지 않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목을 제안한 자가 저이긴 한데 말이죠. 예술의 결과를 기록하거나 아카이빙 한다는 느낌보다. ‘기억 예술’, ‘기록 예술’ 처럼 ‘기록 또는 아카이빙을 예술(적)으로’라는 뜻에 더욱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카이빙 할 대상에 대한 기록의 방식’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아카이빙의 방식에선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을 포함한 마을예술 아카이브를 ‘예술 집적형 마을아카이브’라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문래창작촌, 문래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아카이브 활동을 소개 합니다.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문래아카이브]입니다. 이 결과물의 제목은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 ‘문래공감’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 아카이브



‘어느 한 특정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아카이브 한다’라고 하는 판단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번포럼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아카이브 대상에 대한 예술적 기록을 하는 아카이브 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시 창작행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한 형태입니다.

문래동을 기술과 예술의 마을 공동체(Common Mulla)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문래동의 기억을 기록하고 조사 분석 종합하여 문래마을 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삶의 환경, 삶의 형식, 삶의 과정을 아카이빙 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삶과 예술의 공통(COMMON)성을 확인하고 탐색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며 현장의 관찰 / 기억을 겨냥한 질문 / 적극적인 행위로의 참여 방식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서로 소통하며 삶과 예술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제안은 기술과 예술의 마을공동체와 도시사회의 전체 구성원이 공유(재)로서보다 창의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었다.
-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문래 아카이브]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 “문래공감” 2017



‘기억과 기록의 예술’

예술로 삶을 들여다 보는 일,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는 문래의 풍경 / 문래의 생각 / 마을과 예술 / 기술과 예술 / 문래의 생활 / 문래의 시간으로 아카이브 대상을 범주화하여 **마을 예술인들 다양한 예술적 대상들을 발견하고 반응한 예술적 결과물들을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1. 대안예술공간이라고 하는 지역기반의 예술공간이 장소특정적인 공간운영과 마을과 이웃, 기술과 예술의 관심으로 문래동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작업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과 (지역주체 예술인) 2. 앞서 범주화된 6개의 내용에 담길 아카이브의 대상들을 더 세분화한 기록의 대상들을 예술적 감감으로, 예술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술인 자신만의 예술의 방식으로 기록을 해 달라 주문, 요청하여 기록, 아카이빙 한 것과 3. 문래동의 어떤 대상 또는 사건을 특정하여 창작활동을 벌인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예술 행위들 결과를 수집하고 아카이빙 하였다.

이러한 마을 아카이빙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마을 기록의 활용” 측면이다.

“기본적으로 기록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그것의 중요성은 사업의 초기에서부터 염두해 두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어느 전문 아카이비스트로부터 명시적으로 마을 기록물들의 활용측면이 강조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의 공간으로 만나 도시재생까지 10여년 동안, 마을 공동체마을에 붙어 닦친 변화와 위기 앞에 당사자로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고민하였던 문래창작촌의 예술인으로 이 사업을 맞이했다. 마을의 이웃 예술인들과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지속가능한 문래창작촌의 미래를 꿈꾸는 일”, 마을의 변화와 위기 앞에 “기술과 예술의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기록하여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져온 마을생태계로부터 마을공동체 삶을 가치롭게 하는 일,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부터이다. 수집과 채집의 단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예술행위로서 아카이빙을 하는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록으로서 ‘삶과 예술’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고자 했던 기대와 노력이었고 예술로 “삶을 들여다 보는 일,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었다.

문래 마을공동체의 정체성 -
‘기술과 예술의 마을’

기술과 예술은 본래 ‘한몸’, 기술과 예술은 ‘술(術)의 형제’, 기술이 예술에게 예술이 기술에게 말을 걸어 스스로의 본성을 일깨우고 기술과 예술의 낯선 만남이 새로운 차원의 친구가 된다. 기술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기술이 된다.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 아카이브를 준비하면서 궁금하였습니다. ‘기술과 예술’ ‘기술인과 예술인’ 기술과 예술에 대해 당연히 여기던 것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 예술가를 예술인으로,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부르는 이유



“기록은 모든 예술행위의 시작”

‘문래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 귀 기울여 기록한다는 것’

예술적 자원을 발견하고 반응한 예술인들은 사라져 보이지 않거나 잊혀지거나 망각 되어진 늘 함께하지만 하찮게 여겨지던 것들 까지도 새롭게 감각하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나의 삶을, 나의 노동을, 나의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창조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는데 나는 이것을 “**삶의 예술**”이라 말하고 싶다. 수집과 채집의 단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예술행위로서 아카이빙을 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을 혹자가 말하는 “아트카이브”라 할 것이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기억과 기록



기록은 일회적인 사건을 가시적인 유형으로 보존, 저장하려는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로서 유형의 결과물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기록행위자와 기록물 모두 기록의 매체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일정한 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로서 아카이빙 활동이다. 하지만 **기억**은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료들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정보로 재 발생시키는 ‘창조적 메커니즘’의 일종의 효과로서 기록이나 아카이브와 달리 비물질적 특성을 지닌다. 불안정하여 쉽게 삭제되거나 왜곡, 편집, 변형되기 쉬운 기억은 망각과 함께 한다. 있는 그대로의 물질적 비물질적 대상을 변형 창조하는 예술행위와 많이 닮아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이라 할 때는 그 기억과 기록의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예술적 행위의 과정, 예술적 행위의 결과를 드러내는 일일 것이지만, 문래 마을에 만 있는 패턴을 회화적으로 기록해달라거나 기술인들의 노동과정에서 나오는 이 마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음악으로 기록하여 들려 달라 주문하기도 하고 그 소리를 시각화를 주문, 요청하기도 하였다. 잊혀진 것들, 무심히 버려진 것들, 버려진 역사, 버려진 사람들, 무형의 것들, 익숙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찮다 여겨지던 것들의 기록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고 있는 터이다.



아키비스트,
담론 구성체로의 역할

“기억에 말을 걸어 기록하는 일”은 망각된 것들을 다시 소환하는 생생함과 창조적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술인들의 아카이브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공간 마을공동체에서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예술적 자원을 예술가들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기, 기록하기가 이루어 지는 것 예술의 기억, 예술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예술 기록의 예술”이다. 그러면 기억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변형되기, 이루고 잘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아카이빙 할 수 있을까 (최연하) 이-미지未知 시대의 아카이브의 가능성 - 최연하는 고민하였다. 비물질적 창조행위로서의 예술이 있을 수 있겠다.

마을 공동체를 기록하고 아카이빙 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소통의 기제, 문화의 향유, 공동체 복원의 기능이다. 마을 공동체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복원 운동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든 기술자든 개인의 삶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발현시켜 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캐치해서 아카이빙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1차원적인 수집과 채집의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예술행위로서의 아카이빙을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예술집적형 마을아카이브’에 대한 환기를 논하고 싶다.

[예술집적형 마을아카이브]

마을아카이브의 기본 기능 그리고 마을기록의 생산과 수집에서 마을 기록이라 함은 “마을기록은 마을을 구성하는 마을공동체 자체와 마을 구성원 및 관련 인물과 단체가 생산하는 모든 유형의 기록”이며 마을 내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고민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이 대상이고 따라서 “마을기록의 생산주체는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특성, 지향, 구조의 개성을 나타내며 다양 주체들의 결합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마을기록의 활용]

▶ 기본적으로 기록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기억과 기록의 예술’

- ▶ 다양한 구성원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생산, 수집된 마을 기록 그 의미와 지향을 모두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이용되어야 함
- ▶ 마을기록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전시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함
마을기록을 활용한 전시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록의 원본이나 사본이 조직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며, 마을기록은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마을에 대한 애전과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임
- ▶ 마을기록의 콘텐츠화 마을기록의 주제와 내용을 조직하여 출판물, 이야기, 예술작품, 캐릭터, 영화, 연극 등의 다양한 방안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마을 공동체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함

[예술집적형 마을아카이브 한계와 문제점]

- ▶ 전형성을 넘어선 기록의 형태와 개별특성에 따른 예술아카이브의 구현 논의 문제점
- ▶ 예술기록은 창작활동의 기록 그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과 창작자, 창작 단체로부터 생산 수집한 기록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 특정 예술활동을 통해 생성된 원형적 지식의 축적을 예술아카이브로서 지칭하며, 특성상 예술기록물들은 비조직적이고 현장성으로 인해 휘발되기 쉬우며, 창작과정에 자양한 조직의 관여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등의 성격을 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예술아카이브는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기관이 주체가 된 수집 보존 형태가 주이고 수집의 통로 협력 체계, 분류체계가 아직 미흡한 상태로 아카이브 표준의 근거로 제시될 만한 가령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지 못함”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는 창고에 박제화 되어 소장, 보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고, 서로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활용되어지면서 새로운 아카이브를 생산해내는 생명체 처럼 “삶의 예술”로서 살아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예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술아카이브를 위한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용 방법론을 고민해 본다.

이번 포럼에 마을생태계에 특정대상을 예술적으로 특화시켜 기록화 작업을 한 예술인들은 초대하였다. 전부 마을 기반의 예술활동을 하는 작가들이다. 아카이빙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다. 문래동에 그 전에도 ‘문래동네’ 마을 잡지 (사회적기업 안테나), 문래 예술인 아카이브 (보노보씨) 그 외에 문래 마을공동체 안에 지역 삶의 특정공간을 특정대상을 만나 작업한 리서치 기반의 다양한 예술창작행위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아울러 소통의 재발견,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억의 저장소로서 상설화된 전시 공간마련을 제안하며 자발적 대중과 만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지역적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제안하고 싶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주민이 자발적 참여하는 마을신문, 마을잡지, 아카이브전시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



‘기억과 기록의 예술’



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사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 아니라 과정 속에서 계속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카이브의 힘**이라 생각한다. - 아카이브의 기록물의 창조적 생산

“문래아카이브는 한 개인의 집요한 추적 끝에 붕괴와 회복, 저항의 변증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한 의지의 산물이다. 실천적 아키비스트 (Activist Archivist)로서, 승자의 손으로 쓰인 영웅의 역사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촉구하며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수동적 보관자에서 실천적 아키비스트 (Activist Archivist)로서 능동적인 모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최연하

기술인과 예술인 기술과 예술의 마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신 ‘예술인간의 탄생과 미래의 예술’ - 조정환 선생님과 ‘아-미지 未知 시대의 아카이브의 가능성’ - 최연하 선생님과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문래아카이브’ 집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주신 많은 마을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주를 달지는 않았지만 ‘예술집적형 마을아카이브’는 마을아카이브 교육교재 - 서울 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2부 방향

최서영

(주)더페이퍼 대표



2012년부터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민중의 생활사를 촘촘히 담아내고 있는 지역문화잡지 <사이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골목 골목으로 찾아 들어가 일상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록되지 못해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활동

- (주)더페이퍼 대표 (사회적기업)
- <골목잡지 사이다> 발행인 겸 편집장
- 한국지역출판연대 이사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
- 한국잡지학회 기획이사
- 문래마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도시 예술로젝트 “미래로돌아가다”



영상보기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1. 골목에 스며있는 이웃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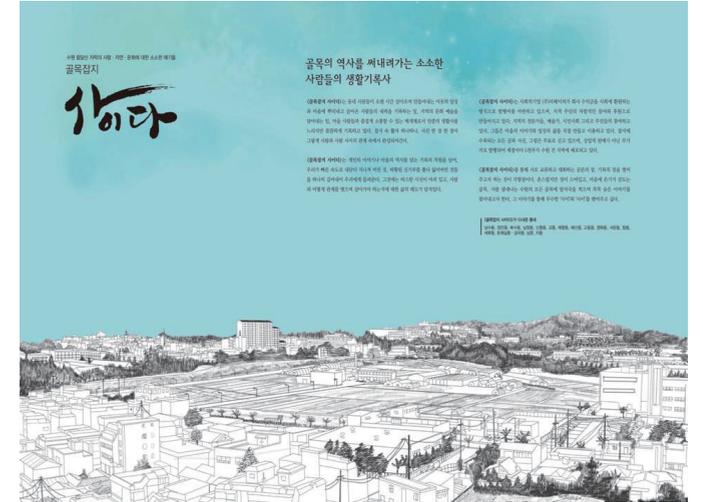
“사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마시는 사이다? 콜라는 아니고요”

골목잡지 <사이다>는 2012년 4월 경기 수원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민중의 생활사를 촘촘히 담아내고자 창간된 지역문화잡지이다. 골목잡지 <사이다>는 수원 골목의 사람, 자연, 문화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 삶과 가까운 일상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이 살아온 시대를 조명하고 기록되지 못해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저장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

골목잡지 <사이다>의 이름은 사람과 사람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 등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제호이다. 골목과 골목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그야말로 ‘사람·자연·문화에 대한 소소한 얘기들’을 재료로 삼아 담백한 밥상을 차리는 골목잡지이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마을 골목을 지켜온 평범한 이웃과 이들이 사는 골목의 역사가 이 잡지의 주인공이다. 동네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살아오며 만들어내는 일상과 마을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내력을 기록하는 일, 지역의 문화 예술을 담아내는 일,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민중의 생활사를 느리지만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주)더페이퍼가 회사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발행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변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잡지에 수록되는 모든 글과 사진, 그림은 무료로 받고 있으며, 상업적 판매가 아닌 무가지로 발행되어 계절마다 5천부가 수원 전 지역에 배포되고 있다. 지역 시민들, 문인과 역사학자, 예술가, 사진작가, 스님, 목사, 성공회 신부 등 100여명 정도의 필진들이 참여해 글을 쓰고 있다. 돈이 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세대에서 소중한 재능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다.

골목잡지 <사이다>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서로 글을 통해 교류하고 대화하는 공론의 장, 기록의 장을 열어주는 지역공동체 미디어이다. 사이다에 모여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마을의 이야기와 일상의 삶을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이용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습으로 지역의 다리로서 성장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모습은 지역의 담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시대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 잡지는 제호에서 풍기는 이미지같은 ‘독 쓰는 맛’은 없는 탄산음료라기보다는 구수한 송농에 가깝고 화려한 수라상이기 보다는 올곧은 선비의 검박한 밥상과 같다. 한 번도 주류를 탐한 적도, 꿈꾼 적도 없는 ‘영향력’, ‘주류’와 같은 패권적 단어들은 이 잡지가 가고자 하는 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 대안매체이다.”

(한겨레신문, 2012년 10월 24일 기사)

잡지 발행을 통해 서울 중심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고 떠나온 촌스러움에 담긴 정직한 땀과 눈물, 낡고 오래된 것들의 미학, 생명의 존엄함, 더불어 사는 가치를 공감하고 그 지역 고유의 생활양식과 문화가 보존하고 살려가는 것을 지역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 잡지를 만들기 위해 골목 구석 구석을 누비다

골목잡지 <사이다>의 취재는 마을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를 찾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생활을 기록하는 형태이다. 골목잡지 <사이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살살이 담아내는데 있다. <사이다>는 지금까지 수원의 18개의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 마을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자취를 뒤돌아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다.

잡지의 제작은 지역필진으로 구성된 편집회의를 통해 취재를 들어갈 동네를 정하면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찾아 간다. 주제의 결정은 취재기자들과 편집진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해진다. 결정된 주제에 맞는 글을 담당할 필진을 선정하고 필진의 수락을 받는다. 기사 작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는 동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고 찾아내서 채워진다.

창간호에 취재를 맡았던 이경이씨는 초창기 막막했던 취재 경험을 이



렇게 말했다. “최서영 편집장이 동네에 숨어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무척 막막했다. 처음 우리가 취재를 시작한 곳이 수원에서 가장 이름 없는 동네 ‘남수동’에 무작정 찾아갔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려고 사흘을 허탕치고 골목을 다니다가 마을 공터에서 최대자 할아버지를 만났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듣고 책을 내고 싶다는 이야기가 통했고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일단 동네가 결정되면 그 동네에 찾아 갑니다. 막막하죠, 보통은 주민 센터를 방문해 잡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받습니다. 동장님마다 성향이 달라서 저희 잡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과정이 저마다 다릅니다. 일단 협조가 결정되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오래 그곳에 고 있는 토박이나 마을의 유래들을 듣게 되고 보통 오래 살고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연세가 많은 통장님들의 연락처를 수배합니다.”

(사이다 취재기자 최주영)

지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취재기자에게 그 동네의 역사이야기를 맛깔나게 해주거나 지역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다. 특히 사이다가 다루고 있는 것은 아주 세세한 삶의 이야기들을 담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려줄 적임자를 찾아나서는 것이 사이다의 핵심 포인트이다.

3. 사이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

골목잡지 <사이다>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잡지 구성을 기획하고, 기사 작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는 동네 골목 구석 구석을 누비고 찾아내서 채워진다. 골목잡지 <사이다>의 디자인은 조금은 촌스럽지만 정이 있고, 누구나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 갈수 있는 모양새를 추구한다. 종이도 재생지를 사용하고 본문서체 까지도 꼼꼼하게 고민하고 작업된다. 그 만큼 편집자들의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꼭지 구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골목특집으로 <그 동네에 살다>, <동네 커뮤니티>, <근대골목역사여행>, <이 사람의 연보>, <사이다가 제안하는 기억찾기>, <추억의 사진관>, <사이다 아카이브> 등이 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사이다〉는 원고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림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그림과 사진에 취미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편집기획 과정에서 원고, 사진, 캘리 등 모든 자료가 준비되면 편집디자인 작업을 진행한다. 편집디자인 부분은 사이다를 발행하고 있는 (주)더페이퍼에서 전담하고 있다. 출판 편집 디자이너들은 일상의 업무가 아닌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가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주)더페이퍼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편집디자인이 완료되면 인쇄과정을 거친다. 〈사이다〉는 인쇄제작에서도 친환경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창간호 발행부터 선택된 판형은 종이의 손실이 가장 적은 ‘4x6배판’ 사이즈로 발행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종이도 친환경재생지를 사용하고 콩기름 인쇄로 제작하고 있다. 잡지 발행도 중요하지만 제작의 모든 과정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잡지제작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가 필요하고 잡지 한 호가 나오는 데 적어도 2개월 정도의 취재가 진행된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원고작성, 교정, 사진 촬영,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편집디자인 작업 등으로 분담하여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회당 제작을 위해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마을은 고등동이다. 육교다리 마을, 풍년상회, 수원여고, 다시서기센터 등에 관한 글이 실렸는데, 고등동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추억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1975년부터 2001년까지 고등동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사이다>를 읽으면 삶의 소소한 일상을 보거나, 희미해져 가는 추억을 더듬거나, 그리고 마을의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사이다를 고등동 편을 읽고 _ 대안미디어 너머에 실린 독자 기사)

마을을 기록합니다. 머무르고 살아가는 공간은 어디가 되었든 시간의 통로를 지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든 마을에는 저마다 삶의 결이 있다. 지역민들의 기억과 일상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4.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다 - 마을아카이빙 활동을 중심으로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소소한 일상기록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기억을 넘어 시대의 기록이 되고 있다.

지역 아카이빙은 단순히 지역의 풍경 또는 경관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보존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게 오롯이 맡겨진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아카이빙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먼저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기록생산자들의 권리와 의무란 무엇인지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한다.

먼저 그간 골목잡지 사이다가 계속적인 지역이야기 기록을 해왔던 그간 진행된 2가지 방식의 작업 결과를 나누고 싶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과의 협업 작업이다.

사이다를 발행하면서 사라지는 많은 지역이야기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기위해서 저희는 공공기관과의 협치를 생각했다. 무료잡지를 발행하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지역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4년 경기도 테마콘텐츠 구축사업으로 진행된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경기도민 이야기』는 〈사이다〉 취재를 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경기도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경기도 자료 DB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의 제안에 사업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이다〉에 실렸던 4분의 피난민 구술 자료에 6분을 추가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조사, 피난민 구술채록, 사진 및 자료수집, 출판을 위한 원고작업, 영상작업,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학술작업, DB 구축까지 과업으로 진행되었고, 일반인이 공유할 수 있는 2차 저작활동이 포함되었다. 이 구축 작업에 소요되는 제작비는 경기도메모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지원을 받았으며 완성된 인터뷰 내용과 사진, 구술영상은 경기도메모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차년도에는 ‘지금도 잊혀진 협계열차 수여선’을 해당 지역 각

‘기억과 기록의 예술’

문화원들이 참여하여 수원, 용인, 이천, 여주문화원이 함께 아카이브 구축작업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참여한 각 문화원에 공유되었으며, <사이다> 12호 (2015)에 게재 되었다. 관련 콘텐츠는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를 통해 웹사이트로 제공되고 있다.

문화원의 참여로 다양한 공간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좋은 협치로 진행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이 2건의 작업은 사업 진행을 전적으로 기획과 시행을 <골목잡지 사이다>가 진행하였기에 공공이 진행되는 아카이브와는 달리 자유로운 형태로 살아있는 이야기 가득한 아카이브가 마련되어 이 사업을 진행한 기관에도 좋은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

3차년도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계속 진행을 위한 파트너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방식이 도입되었고, 주제 선정도 기관이 선정한 주제를 시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로서 종전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가 함께 가졌던 기록물에 대한 권리를 공공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과 함께 민간계약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계약조건이 되었다. 기록 주제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가질 수 없고, 구술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게 되고, 지적재산권 문제가 더하여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경기도 지역
아카이브와 출판**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경기도민 이야기]



[지금은 잊혀진
열매열사 이야기
<수려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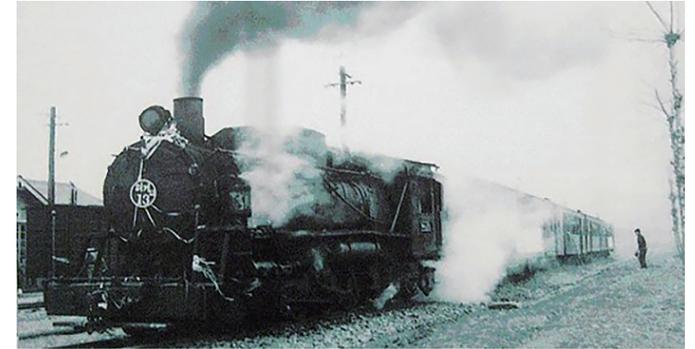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다

한국 전쟁 후, 수원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는 거대한 ‘피난촌’이 형성되었다. 실랑면의 삶이나 역사적 고통의 시간, 1972년 폐선된 수원에서 여주를 다니던 열매열사 이야기

기록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곧 경기도의 근현대사.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이다.

경기도에서 삶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자 한다.



먼저 협치를 생각한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아카이빙을 위한 것이었지만 기록 주제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야 했던 현 상황은 기록주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기록생산자의 권리와 공공기록으로서의 개방의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록주권이 상실된 기록생산자는 단순한 하청업체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경기도메모리에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에도 민간은 초대되지 않았다. 아카이브의 성과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기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협력에 기반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우 기록주권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된 내용도 공공기관의 소속되어 공유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다. 비록 기록의 결과는 좋았지만 공공기관과의 협력 작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다.

단기적 프로젝트로 박제되는 아카이브가 아닌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기록의 사회화를 통해 지역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재생산되는 살아있는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기록생산자의 기록주권을 인정하고 협력을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기록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두 번째는 시민기록자 양성입니다.

지역의 기록화는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그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담아내는 지역의 기록물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을 구성원들이 기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록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이다는 기록 작업의 시작을 <시민기록학교>를 열어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기록학교는 마을기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기록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기록학교이다.

지역주민의 삶을 지속적이고 생동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기록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기록자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마을 아카이빙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 마을 담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현장에 접목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기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이다 시민기록학교>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기억수집 활동 및 체계적 아카이빙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기록 환경을 위한 시민수집가와 시민기록자들의 커뮤니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다 시민기록학교>의 지향점은 첫 번째 그동안 마을기록 작업에서 지역주민이 대상화되는 한계를 벗어나 마을 기록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록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과거 전승문화를 기록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주민의 관점에서 마을이 가진 문화, 역사적 자원과 미래적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마을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시민기록자, 마을주민, 전문가가 충분한 인적 유대와 협력,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행구조로 과정중심의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결론)

지역민들의 삶은 계속되고 수집해야 할 대상들도 계속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성이 담보되는 아카이빙이야말로 살아있는 아카이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2가지 사례에서 아카이빙 결과물은 같았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공공과 협치를 통한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골목박물관을 통해 민간주도로 기록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더디지만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록생산자의 의무는 우리에게 맡겨진 구술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기록윤리를 지켜야 하며, 가장 중요한 의무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의 민간 기록물 수집을 공공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 지역마다 지역아카이빙을 위한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적 프로젝트로 박제되는 아카이브가 아닌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기록의 사회화를 통해 지역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재생산되는 살아있는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기록생산자의 기록주권을 인정하고 협력을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기록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지속적인 지역아카이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마을과 사람을 연결하며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기록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정책적 방향이 꼭 연구되고 논의되었으면 한다. 특히 공동체아카이브는 연대를 통해 더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연대를 위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며 한다. 네트워크의 일차적 목표는 민간들이 네트워크의 성장을 위해 자주 만나고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민간 매체를 통한 아카이빙은 다양한 시각으로 당대를 기록해서 담아놓고, 고여 있지 않고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공공에서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고 말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한번 간 곳을 다시 갈수도 있습니다. 박제화 된 기록이 아니라 살아서 계속 덧붙이고 업데이트 되는 아카이브입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아카이빙이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록물이 수집, 보존, 활용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교육적, 예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부 방향

이승욱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1990년대 후반부터 독립예술제(現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춘천인형극제 등 다수 공연예술축제 기획에 참여했고 (사)문화다움에서 지역문화 컨설팅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2010년 이후 부산으로 돌아와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를 창간했고, 수영성문화마을, 강강이예술마을, 영도 문화도시 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 문화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활동

- 지역문화지 안녕광안리 발행인
- 부산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집행위원장
-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총감독
- 영도문화도시사업단 총감독
- 문래마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동도시 예술로젝트 ‘미래로돌아가다’



영상보기

지역문화자원 기록과 공유의 다양한 방식과 사례

Scene #1. ‘우리 모두의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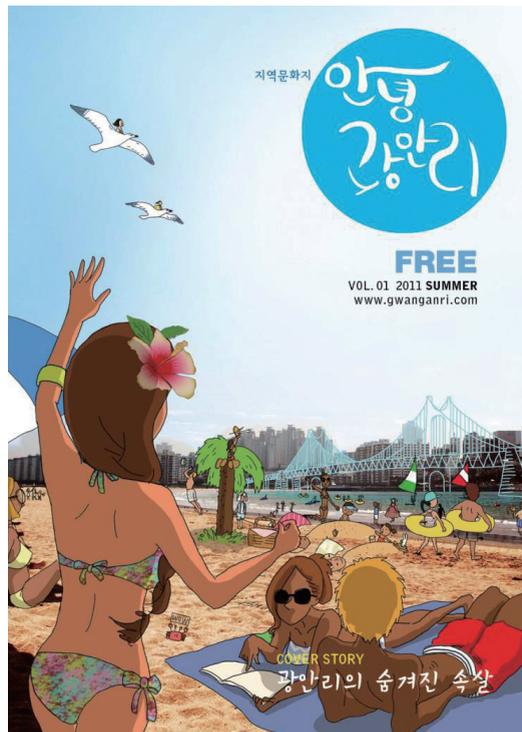
이 벽화는 독일 출신 그래피티 작가 헨드릭 바이키리히가 강강이마을 입구에 위치한 아파트 벽체에 그린 작품이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Mother of Everyone”이란 태그를 붙여 강강이 아지매의 이미지를 표상했다. 이 작가는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그 지역에 사는 평범한 주민, 특히 노인의 얼굴을 흑백의 단색화로 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 지역에서 인물벽화를 그린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이구동성으로 그 지역 출신의 유명한 사람의 인물화를 요청한다. 이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그 곳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 깊게 주름이 팬 노인의 얼굴이야말로 그 지역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역문화 자원의 조사와 발굴의 출발점은 잘 알려진 사람이나 사건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감춰진 속살을 들춰보는 일이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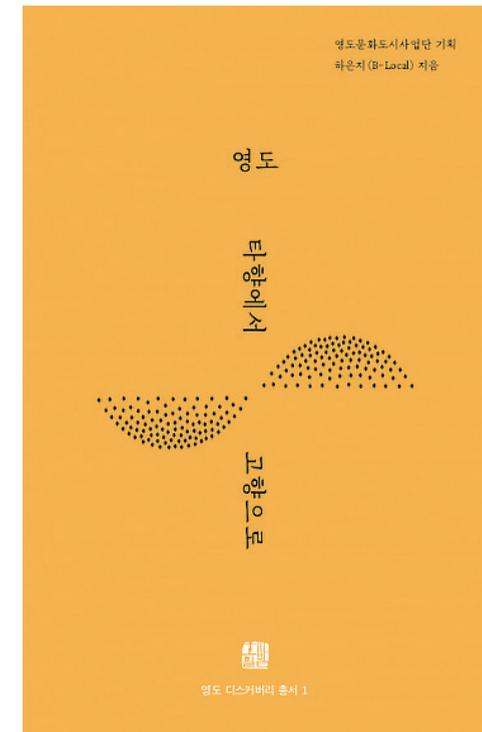
Scene #2.
‘안녕광안리’에서
‘다리너머영도’까지

개인적으로 2010년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지역잡지 ‘안녕광안리’를 창간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잡지가 발판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축제행사를 만들기도 했고 결국 플랜비 문화예술협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지역의 사소한 일상을 담아 내려고 했던 이 경험의 원형은 플랜비가 지역활동을 할 때마다 잡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수영성 문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푸조와 곰솔’이라는 계간지를 창간했고 이를 통해 2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같은 이름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었다. 갯강이 마을에서는 ‘만사대평’을 그리고 영도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리너머영도’를 창간했다. 보통 이런 류의 잡지들은 디자이너나 편집기획자 1인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말한 잡지들은 보통 10여명의 사람들이 편집위원, 디자이너, 사진작가 등으로 참여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지역잡지를 발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공유, 확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지역 문화주체들을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Scene #3.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

지역사업을 하면서 잡지에 더해 책을 만드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수영성문화마을 사업을 하면서 지역교양서 ‘수영강은 흐른다’, 드로잉북 ‘수영을 걷다’ 웹툰 ‘별 탈 없이 산다’ 3권의 책을 만들었다. 갯강이마을에서는 ‘갯강이마을의 100년의 울림’ 역사편, 산업편, 생활편 3권의 시리즈, ‘대평동 공업사를 만나다’, ‘갯강이예술마을 가이드북’, 주민 자서전 등을 냈다. 영도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 이주민들의 인터뷰 책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2권씩 10여 권의 책을 영도 디스커버리 총서란 이름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지역학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부산학총서처럼 지역학 연구서들이 출판되기도 하지만 마을 단위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대중교양서를 출판하는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다. 공공지원금을 받는 경우 판매되는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행정적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 고집을 부려 출판사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역교양서의 꾸준한 출판과 유통은 방문객들뿐만 주민들에게도 그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Scene #4.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

강강이예술마을에서 발간한 5권의 총서 가운데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책이 있다.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는데’라는 수줍은 제목으로 주민들이 직접 창작한 시화와 자서전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주민들의 시화동아리에서 출발했다. 사업단 스태프 가운데 한 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화동아리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과 함께 7명의 주민들이 직접 짓고 그린 시화의 결과물은 처음 나의 태도를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 다음 해에 다시 이 마을 출신의 소설가와 자서전 동아리를 꾸렸고 시화동아리의 주민 창작물까지 담아 책으로 출간했다. 칠곡 사례처럼 대단한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3쇄까지 출간했고 다른 어느 책보다 강강이마을의 삶과 역사를 가장 잘 전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자원의 아카이빙은 반드시 전문가들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을 깨닫게 해주는 작업이었다. 이 동아리에 참여했던 분들은 대부분 노령이지만 강강이예술마을의 행사나 사업에 가장 열렬한 참여자이자 지지자이다.



Scene #5.
Sound Scene

지역문화자원을 아카이빙 하는 것은 반드시 문자(텍스트)에 기반한 작업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가능하다. 강강이마을박물관에는 전광표 작가의 사운드스케이프 작품이 있다. 이 작가는 3개월 동안 지역 곳곳을 다니며 소리지도를 만들었다. 지도에 표기된 번호의 카드를 기기에 꽂으면 스피커에서 현장에서 채집한 망치질 소리, 바람소리, 주민들의 인터뷰가 나온다. 마을박물관 입구에는 공중전화 박스를 활용한 정만영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전화기 대신 버튼을 누르면 강강이마을의 소리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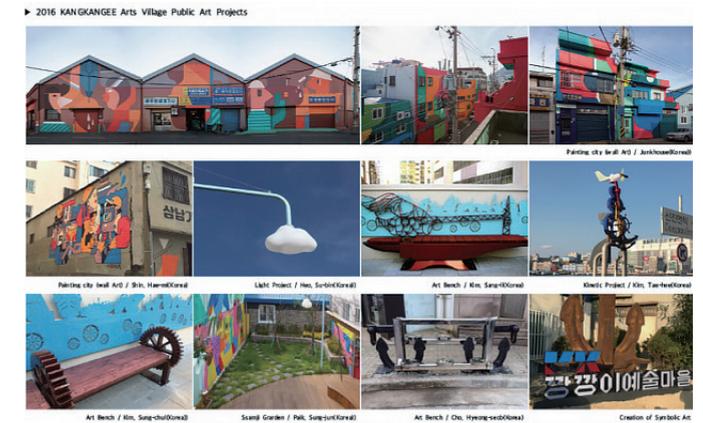
Scene #6.
1950 대평동, 최백호



강강이마을 주민들이 애창하는 노래방 18번은 최백호의 ‘1950 대평동’이다. 강강이예술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 출신 가수 최백호에게 의뢰하여 만든 노래이다. 최백호는 대평동에서 지냈던 유년 시절 추억과 이 곳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돌연 의문을 맞은 선친에 대한 아픈 기억을 담아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했다. 강강이마을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하공연을 했고 직접 그린 그림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 출신 인디밴드 스카웨이커스의 강강30세, 영국 작가 마크스태포드가 2주간 이 곳에 머무르며 영도의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 ‘강강이블루스’ 외계생물의 침략에 맞서 강강이 망치소리로 지구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은 배민기 작가의 웹툰 ‘강강시티’ 등 강강이마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Scene #7.
공공미술과 거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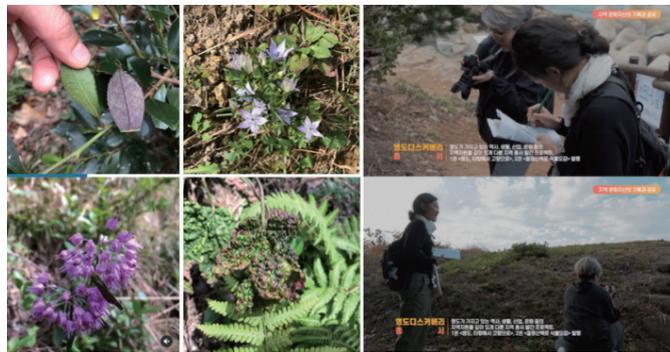
강강이예술마을 공공미술 작업에는 28명의 국내, 해외 작가들이 80여개의 작품을 남겼다. 장식적 설치작품이나 벽화작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Site-specific) 작업에 집중했다. 또한 스트리트퍼니처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물, 벤치와 가로등, 쌈지공원과 쉼터, 표지판 등을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으로 제작, 설치했다. 벽화작업도 오염된 공장의 벽체나 공공시설물의 담장을 예술가들이 도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페인팅시티라는 프로젝트 명칭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평균 6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 주민들의 수요 조사, 지역 리서치를 거쳐 작품을 구상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담회를 거쳤다. 이런 과정을 거친 작품들은 지역의 삶이나 역사와 연결되는 주제를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 이 지역의 특성에 담은 소재들을 활용한 작업들로 진행됐다. 직접 거리박물관이란 이름으로 70m 조선소 담장에 강강이예술마을의 역사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한 작업이나 60년이 된 오랜 예인선을 활용한 선박체험관 조성작업도 있었지만 아트 벤치, 골목정원, 사운드/라이트/키네틱 프로젝트, 페인팅시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된 이 공공미술 작품들은 거리 곳곳에서 이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거리박물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

Scene #8.
절영로 식물오감

지역 문화활동을 하면서 여러 계기로 도시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영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속에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영도의 자연생태를 아카이빙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영도 자연도감을 만들 계획으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최소한 지질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대한 작업이고 바다 속 탐사까지 진행하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문 연구자도 아니고 반드시 교과서적 접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화기획의 관점에서 다른 접근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큐레이터와 만나 협의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영도의 식물과 생태환경을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등 오감을 통해 체험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지난 가을과 겨울을 걸쳐 흰여울마을 입구에서 태종대로 이어지는 절영산책로를 여러 차례 답사했고 이 리서치는 봄과 가을에도 이어질 계획이다. 그 결과를 묶어 독특한 예술적 감성을 담은 절영로 식물오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그 후속 작업으로 절영산책로 일대에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필드형 뮤지엄도 조성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Scene #9.
강강이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30평 남짓한 강강이마을박물관은 2018년 봄에 개관했다. 2015년 강강이에술마을을 최초 기획서에 마을박물관 프로젝트는 대략 3년의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는 기초자원조사였고 대략 6개월 동안 각종 문헌조사, 200명의 주민 인터뷰를 거쳐 최소 보고서가 작성됐다. 2단계는 이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형성하는 작업인데 앞서 언급한 지역총서 시리즈를 포함한 책자의 발간,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음원 및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작업을 1년 이상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마을박물관이 들어설 강강이생활문화센터 설계 및 리노베이션 작업도 동시에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지역미술단체와 협업하여 마을박물관 내 구체적인 공간 및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작업을 6개월 가량 진행했다. 기본계획 수립 → 기초 자원조사 → 다양한 콘텐츠 실행 → 공간건축 → 전시설치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은 대략 3년 가까이 소요된 셈이다. 마을박물관에 전시된 물품 가운데 상당수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다. 조사 리서치작업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업주체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조사 과정 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기학습이자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역사, 산업, 생활편



마을박물관의 수리조선관련 주민 기증품들

영등포 문화적도시재생
문화생산도시리빙랩 아카이브 포럼
'기억과 기록의 예술'



2부_ 토론 및 Q&A

‘기억과 기록의 예술’



사회자
손동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이빙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어떻게 아카이빙할거냐. 그냥 조리법을 남긴다는 게 아카이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 이걸 찍어서 남긴다는 거는 공연이라는 입체적이 활동을 평면화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카이빙을 할거냐. 이런 고민들을 종종 동료들하고 하는데요. 그런 고민에 어떤 힌트라고 할까요. 어떤 단서를 주는 것 같아서 발표를 아주 반갑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하는 내용들이 더 넓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서영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재원 마련과 기관하고의 역할 관계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하셨던 박지원 대표님께서도 문래의 사례와 함께, 총론적인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왜 나는 이런 작업을 하는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기록 관리 분야에서 20년 활동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만나는 분들에게 기록 관리 분야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잠깐 말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최대한 짧게 기록 관리 분야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기록관리 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 공사 공단까지, 기록물 관리, 업무 과정에서 나오는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되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 안에 생긴 일입니다. 그와 맞물려 가끔 대학교에서는 학과를 열게 됩니다.

현재 제가 아는 걸로 약 25개 대학에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 과정으로 기록관리학과를 두고 전문 인력을 배출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는 낯설고 지형도 넓지 않지만 엄연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산업이 존재하고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연구사들이 존재하는 관의 영역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죠. 법에서는 주로 행정영역에 공공기관의 행정기록을 중심으로 법이 지금 꾸려져 있는데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한 10년 안쪽의 상황으로 공동체들,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함께 공유하려는 그런 노력이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나 앞서 1부에서 발표하신 정릉 마을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민간영역의 기록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히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의 활동,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남기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러면 우선 제가 드린 질문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서영

기록과 관련해서 대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도 문화관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면 대부분 사업으로 모든 게 접근이 됐고요. 어떤 사업 타이틀을 가지고 이 일을 했죠. 그래서 대상화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을로 들어가 봤을 때 마을 분들이 갖는 생각들을 들어보니,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기록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다를 처음 발행하려고 했을 때도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지역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골목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담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분들과에 관계를 생기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자. 우리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와 그 목소리들을 담으려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었던. 굉장히 소소하고 세세하고 이런 이야기들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과물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은 같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분들을 만나고 어떤 글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글을 쓰는 방향이나 톤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똑같으세요.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러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손을 꼭 잡고 안 놓으세요.

‘기억과 기록의 예술’

그리고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당신들의 그 삶의 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지금 손동현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될 수 있을까 해요.

사회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이렇게 표현되는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인 기록 활동과 기록 공유 형태의 경우,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스스로도 전망을 내기 모호한 측면도 있어요. 특히나 어르신들의 구술 프로젝트에서 어르신들은 말씀해주는 걸로 자기 역할이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에 국민대의 한 교수님께서 중요한 시도를 하는데, 구술을 해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작은 연극을 만들어서 어르신이 연극에 직접 배우로 출연하셔서 당신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말씀해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거나 이런 중요한 시도들처럼,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화가 되지 않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다의 중요한 작업과 시도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최서영 사실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나오면 본인들이 공유하세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글을 쓰거나 그림, 지도를 많이 그리는데요. 인생 지도 같은 거죠. 대부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그리는데요. 제가 이야기 기록하면서 느꼈던 게, 일제 강점기 시절을 사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지도를 그리더라고요. 본인이 살았던 마을 지도를요.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지도에 그리거나 하는 등, 이분들이 주체가 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다른 영역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승욱 대표님도 아까 제가 드린 질문 함께 합쳐서 못하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욱 수원의 사이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잡지 만들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 동네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트 만드시는 분들이 동네에 대한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희를 후원해 주신적도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원고료가 없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적게 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후에는 지역 활동, 그러니까 문화특화형 문화마을 사업을 한다든지 했어요.

강강이예술마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보면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드는 거 외에 쓸데없는 작업에 왜 에너지를 쓰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든지 문체부에서 하는 이런 문화 도시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 콘텐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드웨어 이야기 할 때 아주 기초가 되는 아카이빙 영역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잡지 만들고 잡지형태가 제목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랐거든요. 잡지 만들고 책 만들고 이런 것들은 기본 매뉴얼처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지원 최서영 대표님의 대상화에 대한 답변이 제가 답변해야 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스스로의 삶, 스스로 기록한다고 하는 건, 대상화는 어쨌든 그 대상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대상을 만나는 방식들을, 특정해서 아키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아키비스트가 예술가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들을 만나는 방식은 제 생각에는 그냥 조력자, 매개자, 매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들을 하고요. 예술가라면 예술적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들이 있죠.

오늘 발표했던 김진 작가의 아카이브 방식이 꾸꾸미식당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입구에서, 개인전도 했는데요. 데메테르라고 하는 농경의 신의, 여신을 발견하면서 꾸꾸미 사장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 나고, 자기의 그

‘기억과 기록의 예술’

러한 일로 과거를, 자기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 스스로 손글씨를 써서 자기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김진 작가의 작업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상화를 극복하기 위한 좀 면밀한 준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온 지 10년에 처음에는 정말 위기였어요. 곧 사라질 위기의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흔들리고 늘 위태로움의 공간으로 사람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재개발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10여 년 동안 도시 재생으로 마을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만난 것이 저한테 무엇이었나 돌아보면 삶의 변화들, 그리고 그 삶들을 읽어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록을 베이스로 하는 미디어 작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변화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졌던 마을의 생태계에서 삶의 가치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 이웃, 그리고 공간 그 안에서 버려지고 하찮게 잊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롭게 다가오고요. 예술가인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일로부터, 발견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순간들이 저한테는 마을에 살면서 지금까지 아카이빙을 했던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최서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게 10여 년 동안 마을도 변했지만 그래서 저도 좀 변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회자 박지원 대표님의 마음과 접근,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시 서로에게 조언이나 질문이 있을까요?

최서영 오늘 이 자리가 민간이 하는 어떤 공동체 아카이브를 어떻게 지속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나 연대요. 지금 정책적으로 국가기록원 안에서 민간 기록을 어떻게 할지, 아예 영역자체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다 각자의

형태로 하고 있지만,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아카이브가 어떤 사업인가 예요,

저희가 배울 때는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자체로 큰 세계이고, 아카이브가 기록 생태계가 돼서 기록만을 위한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끼어들어서 기초사업으로 진행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좀 서로 고민을 나누고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기록자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손동유 원장님은 기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 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관리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으셔서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6-7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99년에 만들어졌던 법, 기록관리법이 크게 바뀌었는데 바뀐 요소 중에 하나가 민간 기록에 대해서도 문을 여는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기록화 하는 것과 연계되기 보다는 그간의 기록의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 개인이나 일반이 생산하는 것도 수집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정도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진 않지만 아직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원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활동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협력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분이 우리 한 번 모이자 해서 모여 봤더니, 정말 갈등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자생적으로 계속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면서 기록원이나 아무튼 국가적인 정책에서 좀 더 모여진 의견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카이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지금 기록을 만

‘기억과 기록의 예술’

드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이것을 남기고 전승한다는 측면에서는 민간에서는 다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각각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박지원 기록의 영역은 방대하고 방식도 다양한데요. 저의 조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술적 아카이브라고 하는, 예술적으로 만나 예술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지금 아카이브에 유형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의 아카이브 기록은 창작의 행위, 전시 창작 행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의 결과물들이 창조적으로 다시 쓰여 지는 일, 지역 안에서 기록된 것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구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행위로써의 아카이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 안에 그런 기억 저장소, 예술의 활용하고 다시 주체들을 만나면서 뭔가 재생산하는 구조의 공간들이 상설화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공간에서 사건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싶어요.

사회자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승욱 대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승욱 예전에 아카이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저는 책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사양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을 하고 또 아카이빙에 대해 오래 고민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저의 문제의식은 굉장히 부박하기 짝이 없거든요. 저는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알아야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필요한 방식대로 경험적으로 했죠. 오늘 제 발표도 경험적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느낀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서

울에 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간 애매모호한 이중적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지역 문화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관점 자체가 되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고요한 내재적 가치들을 폄하하고 서울과 비슷해져 있는 것들을 계속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좀 뒤집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잡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했기에 지금도 저는 아카이빙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문제의식, 체계적인 문제의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편으로는, 저는 아키비스트 보다는 기획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 기획자들이 실천적인 필요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소통을 많이 하면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이게 기능적으로 너무 제도화 되다 보면 본연의 원래 가치와 그 아우라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생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자 예 감사합니다. 강원재 대표님.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으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재 요즘 기록 활동, 기록물을 생산하는 활동, 기록관 설립 등 이런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예술은 또 무엇인가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기록 활동가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전에 연극하시는 분들이 저 먼 과거의 서사를 현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기록을 조각으로 남기고 그림으로 남기고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러이자, 기록 활동가들이었는데 언제인가부터 표현하는 감각과 표현하는 행위의 예술만이 예술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는 동안, 그동안 놓쳐버리

‘기억과 기록의 예술’

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많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술가들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 모아내고,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공공의 장에서 발표되고 의미화 되고, 플랫폼에서 사람들에게 다시 공유 되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록의 작업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요. 이는 제가 하는 역할의 많은 부분으로 삼아야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발표해주신 분들, 그동안의 경험치들을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지사향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여전히 목마르실 거라고 봅니다. 강원재 대표의 말씀처럼 각 활동가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노력 존중받아야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예술이라고 해도 창작자와 향유자가 이제는 칼처럼 구분되는 시기라기보다 일정 부분 협력하는, 문턱이 낮아지는 협력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적 분위기가 더 많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발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인사를 맺겠습니다.



발행일 2020. 2. 28

발행처 영등포문화재단

발행인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재

기획·실행 문화적도시재생 총괄기획자
박지원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문화정책파트
박만식, 장혜윤, 우민희, 장선정, 황지예

디자인 귀기울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07258)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 3가)

www.ydpcf.or.kr

<https://www.facebook.com/ydpcf/>

T. 02-2670-4020

F. 02-2068-9496

이 책의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2019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억과 록 의예술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하우징랩 H-Hall

 영등포문화재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dpcf/>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luTt0GRpWBrEdWtxTJHplg>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영등포구

주관 | 영등포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